

대학생 캡스톤자인 경진대회

2026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대학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학술대회
전체 초록집

번호	수상	성명/소속	팀명	작품명	지도교수
1	현장발표	김은지 외 3인 /원광대학교	HEED (Happy Eating EveryDay)	자세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섭식 자세 보조 도구	민경철
2	현장발표	이영연 외 1인 /연세대학교	손길과 희망	힘에 따라 촉감이 변하는 감각조절 스마트 말랑이	박혜연
3	현장발표	황두현 외 5인 /전주대학교	T.O.T (Top of Occupational Therapy)	발달성 협응장애 아동들의 협응력 향상을 위한 놀이 치료도구(크크크레인)	정윤화
4	장려상	이예령 외 7인 /고신대학교	오큐파인	윈터치 논슬립 옷걸이	홍소영
5	장려상	최다연 외 14인 /동아대학교	무적작치	3D 프린팅펜 기반 수부 재활교구 개발	박다솔
6	장려상	하승수 외 2인 /연세대학교	OTT	컴퓨터 비전 기반 표준화 평가 자동 채점 및 맞춤 재활 훈련 플랫폼	박지혁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수상	성명/소속	팀명	작품명	지도교수
1	아이디어상	김전태 외 7인 /경북대학교	Re act	노인의 노쇠 및 기능저하 클라이언트의 자기 주도적 홈 재활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	박은정
2	아이디어상	김도영 외 4인 /우송대학교	OT-vation (오티베이션)	기존 겨드랑이 화상 보조기의 통기성 및 위생 관련 보완적 소재 적용 설계 제안	원창연
3	아이디어상	김민서 외 6인 /전주대학교	CLUE	터치캐치	정윤희
4	아이디어상	김아람 외 3인 /세명대학교	동행	도구 탈부착형 자측편위 보조기	김선호
5	아이디어상	김조은 외 4인 /신구대학교	최강작치 우승하리라	감각 조절 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감각 조절 키트	양서원
6	아이디어상	김지선 외 3인 /세명대학교	Y2KS	상지 기능 저하 환자들을 위한 원터치 접이식 옷걸이	김선호
7	아이디어상	김창대 외 5인 /상지대학교	4조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이 보물보물! (인지재활 워크북)	김아람
8	아이디어상	민유준 외 2인 /중원대학교	택타일	Tactile-Link	함예진
9	아이디어상	박이랑 외 1인 /원광대학교	OTL	노인성 연하장애 설명서	최유임
10	아이디어상	박하민 외 6인 /전주대학교	리커버리랩	Emotion pick	정윤희

번호	수상	성명/소속	팀명	작품명	지도교수
11	아이디어상	유병찬 외 6인 /원광대학교	지역사회 웰니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동 실태 조사: 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손영수
12	아이디어상	윤재성 외 1인 /백석대학교	1등 보여주조	기억길 안내 안경	박강현
13	아이디어상	이원형 외 3인 /원광대학교	이어짐	가정방문 재활 매칭 앱 이어짐: 환자와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빈틈없는 연결	민경철
14	아이디어상	이유진 외 5인 /전주대학교	과일탐험대	주렁주렁 과일 팡! 팡!	정윤희
15	아이디어상	이지환 외 4인 /제주한라대학교	지환이와 아이들	Color-Match 다트	김석범
16	아이디어상	장원준 외 4인 /제주한라대학교	바두기	시소 마블 챌린지	김석범
17	아이디어상	조민호 외 6인 /전주대학교	바나나퀵	배달왔승!	정윤희
18	아이디어상	조인성 외 1인 /중원대학교	이음워크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직업 유지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대화 훈련 앱	함예진
19	아이디어상	천유빈 외 4인 /원광대학교	빛나락(樂)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손영수
20	아이디어상	홍지애 외 3인 /고신대학교	감자탐험대	통합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감각통합중재 기반 그룹놀이 프로그램	이나헬

자세인식기술을 활용한 섭식 자세 보조도구(Align care) 개발

김은지*, 박이랑*, 위예진*, 최성모*, 민경철**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삼킴곤란 호소 인구는 약 3%(신경학적 손상 20~90%, 65세 이상의 노인 30~40% / 소아 1%, 뇌성마비 38%)로 알려져있다. 올바른 식사 자세는 기도 보호 및 흡인 예방으로 안전한 삼킴을 돕는다. 하지만 기존 자세보조기기는 고정지지 중심으로 실시간 자세 감지 및 피드백 감지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실습을 통해 안정적인 몸통 조절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안전한 삼킴에 중요한 요소임을 직접 관찰하였다. 특히 몸통의 정렬이 무너지면 삼킴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자세 조절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세 보조도구는 사용자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자세가 나타났을 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시간 자세 감지 및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여 흡인 예방과 올바른 자세 형성을 보조하는 AAlign Care를 개발하게 되었다.

결과물 및 특징 : 공기압 조끼에 실시간 자세 인식 센서를 내장하여 자세를 인식하고 chin-tuck 자세 유지를 위해 피부 부착형 센서 패치를 턱 끝, 아래턱뼈각, 복장 패임에 부착하여 턱의 각도와 움직임을 카메라와 함께 인식한다. 위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되어 자세를 분석하고 시청각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치료사가 카메라를 대상자의 측면에 설치한 뒤, 카메라와 공기압조끼, 패치를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시킨다.

대상자에게 공기압 조끼와 패치를 착용시킨 후 치료사에 의해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를 잡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대상자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치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기압 조끼의 공기량을 조정한다.

독립적으로 식이를 수행하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세 범위에서 오차 발생 시 시청각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을 참고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식이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 4, 5번을 반복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반복적인 자세 교정 경험으로 기능적인 성장 및 안정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AlignCare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전후 비교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을 통한 환자의 실시간 자세조절로 치료사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된다.

아동 중에서는 자세조절이 어려운 CP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에게 적용할 경우 조끼 사이즈 조절로 아동의 발달 과정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삼킴장애, 몸통 안정화, Chin-Tuck 자세, 자세인식기술, 섭식자세보조도구

힘에 따라 촉감이 변하는 감각조절 스마트 말랑이

- 비뉴턴 액체와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작업치료 디바이스 -

이영연*, 김현진*, 박혜연**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각조절 장애 및 ADHD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작업치료 중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기존 피켓 교구는 주의집중력 향상과 행동 조절에 치료적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단순 장난감 형태에 그쳐 지속적인 치료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환자의 손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임상적 한계가 존재한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이러한 임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탄성 비뉴턴 유체와 FSR(Force Sensing Resistor) 압력 감지 센서를 융합한 스마트 작업치료 디바이스('스마트 말랑이')를 개발하였다. 환자가 파지하는 힘과 속도에 따라 저항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비뉴턴 유체 메커니즘과 체온 감응형 써모크로믹 실리콘 외피를 적용하여 촉각 및 시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며, BLE(Bluetooth Low Energy) 모듈을 통해 정량적 측정 프로그램 및 모바일 재활 게임 콘텐츠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구현하였다.

결과물 및 특징 : 본 디바이스는 비뉴턴 액체를 활용하여 저비용 구조로 환자의 파지 힘과 속도에 비례해 말랑이의 경도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가변 저항 체계를 구현하였다. 또한 파지 시 발생하는 악력(kg) 및 지속 시간을 정밀 측정하여 주간·월간 리포트 형태로 객관적 치료 데이터를 자동 산출한다. 아울러 내부 실리콘 보호막으로 회로와 유체를 완전히 격리하여 내구성과 위생을 확보하였으며,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4종의 맞춤형 재활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디바이스는 실시간 악력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를 통해 기존 주관적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근거 중심 작업치료(EBOT)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러한 정량화된 치료 데이터가 모바일 앱과 연동됨으로써 임상 현장을 넘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끊임 없는 재활을 이어가는 디지털 원격 중재(Tele-rehabilitation)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몰입감 높은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접목하여 환자의 자발적인 놀이 참여와 치료 동기를 극대화함으로써, 감각조절 장애 및 ADHD 아동은 물론 상지 재활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와 치매·근골격계 질환 노인 등 전 생애주기 환자군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감각조절, 근거 중심 작업치료(EBOT), 비뉴턴 액체, 스마트 말랑이, 재활 게이미피케이션, 정량적 손 기능 평가

작업치료용 놀이치료 도구

황두현*, 김규빈*, 신효준*, 강민혁*, 최지유*, 최예빈*, 정윤화**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성 협응 장애 아동은 또래에 비해 신체 움직임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눈-손 협응, 힘 조절, 공간지각 및 위치·방향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글쓰기, 식사, 옷 입기, 물건 정리 및 길 찾기 등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하고, 공간 개념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치료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형뽑기 기계와 유사한 크레인 조작 방식을 활용하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는 놀이를 고안하였다. 투명한 상자 안에 다양한 색상의 컨테이너와 선박을 배치하고, 크레인의 레버와 손잡이를 조작하여 컨테이너를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미션카드를 활용하여 모양, 색, 위치, 순서 및 컨테이너 개수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혼자 하는 놀이와 두 명이 협력하는 놀이를 모두 구성하여 아동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물 및 특징 : 완성된 놀이치료 도구의 이름은 ‘크크크레인’이다. 아동은 크레인을 조작하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고, 미션카드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컨테이너를 배열한다. 이를 통해 눈으로 물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손으로 크레인을 조작하는 눈-손 협응 능력, 물건을 잡는 데 필요한 힘을 조절하는 능력,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공간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단계별 미션과 협동 놀이를 통해 운동계획, 문제해결 및 협력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크크크레인은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눈-손 협응, 힘 조절, 공간지각 및 운동계획 능력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글쓰기, 식사, 옷 입기, 물건 정리 등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미션카드의 조건과 컨테이너의 개수 등을 조절하여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별 활동이 가능하며, 아동 개인 또는 2인 협동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성 협응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및 작업치료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치료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발달성 협응 장애, 놀이치료, 눈-손 협응, 힘조절, 공간지각, 운동계획

작업치료 논슬립 윈터치 옷걸이

이예령*, 김민서*, 안태영*, 김환희*, 윤다은*, 김나연*, 안수아*, 진보민*, 홍소영**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상지 근력 및 손 기능이 저하된 사용자는 일반 옷걸이의 펼치기, 고정 및 의류 걸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기존 옷걸이는 옷을 걸고 빼거나 접고 펼치는 과정에서 양손을 사용해야 하거나 여러 번의 조작과 일정 수준의 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편마비 및 손 기능 저하 사용자의 독립적인 의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있어, 본 작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기존 접이식 옷걸이의 구조를 분석하여 양손 조작 및 다단계 조작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윈터치 버튼 방식의 접이식 자동 옷걸이를 설계하였다. 옷걸이 중앙에 버튼을 적용하여 한 번의 조작만으로 양쪽 날개가 펼쳐지는 구조로 개발하였으며, 의류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버튼 및 연결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물 및 특징 : 최종 결과물인 '논슬립 윈터치 옷걸이'는 중앙 윈터치 버튼을 통해 한 손으로도 양 날개를 쉽게 접고 펼 수 있어, 기존 옷걸이에 비해 손가락 힘과 양손 사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옷목 늘어남 없이 신속한 옷 걸기·빼기가 가능하다. 또한 미끄럼 방지 그림 설계를 적용하여 가벼운 소재의 의류도 흘러내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접이식 구조를 도입하여 미사용 시 슬림하게 접어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다. 간단한 조작 방식과 교체 가능한 부품 설계는 사용 편의성뿐 아니라 유지보수성까지 높였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제품은 사용자가 옷을 보다 쉽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 일상 생활 수행능력(ADL)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손만으로도 쉽게 옷을 걸 수 있어 손 기능 및 상지 기능이 저하된 사용자의 의생활 수행 시 독립성을 높이고, 옷을 입고 벗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움직임과 허리 굽힘 등을 줄여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또한 특정 장애 사용자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장애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스스로 의복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자동 옷걸이, 윈터치, 보조기기, 논슬립, 유니버설 디자인

3D 프린팅 펜 기반 수부 재활 교구 개발

최다연*, 김도연*, 김민서*, 김미서(2)*, 김민재*, 김영원*, 노예빈*, 박지우*, 신서윤*,
이소현*, 이수연*, 이재원*, 진효정*, 최지민*, 홍제희*, 박다솔**

*동아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동아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퇴원 후 환자들은 스스로 손 운동을 해야하지만, 치료실에서 배운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자가재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손가락 운동 보조기는 적절한 운동 각도와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나 금지된 자세를 알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원 후에도 환자가 올바른 운동 방법과 관절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며 안전하게 자가재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퇴원 후 손 재활교육의 공백과 기존 교육도구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D펜, 경첩, 실을 활용하여 힘줄과 관절의 연동을 구현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3D펜을 선택한 이유는 제작 후에도 크기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조를 즉시 추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제품은 기존 교육도구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물 및 특징 : 본 제품은 실을 이용해 손가락의 힘줄 움직임을 구현하므로 사용자가 실을 직접 당겨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힘줄과 관절의 적절한 움직임 범위와 보호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또 3D펜을 활용해 대상자의 손에 맞게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복지관, 가정, 외래 및 방문재활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퇴원 후 재활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기존의 영상 교육이나 일반 손 골격모형과 차별화된 참여형 교육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상자의 손 크기나 구조에 맞게 구조를 수정할 수 있어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재활운동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퇴원 후 보건소, 복지관, 재활기관에서 반복적인 재활교육과 실습에 활용해 자가재활교육의 연속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자가재활, 3D펜, 연속성, 맞춤형, 관절

컴퓨터 비전 기반 표준화 상지 기능 평가 자동채점 및 맞춤 재활 훈련 플랫폼 개발

하승수*, 김남형*, 김도영*, 박지혁**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프로젝트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표준화 평가는 전문재활치료 지속 여부와 재활의료기관 입원 판정, 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필수 업무이나 시행과 채점, 기록은 여전히 수기에 의존한다. 임상 실습 중 동일 환자의 FMA 검사에서 치료사 간 21점 차이를 직접 관찰하여, 표준화 도구조차 평가자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치료사 1인이 평가·기록에 쓰는 시간은 연간 약 192시간으로 추정된다.

아이디어 및 개발과정 :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표준화 평가를 자동 채점하고 그 결과를 맞춤 훈련으로 연결하는 웹 기반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임상 사용 빈도와 자동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BBT, NHPT, FMA-UE 3종을 선정하고,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 뒤 경제성·개인정보·법규·기술 제약조건을 도출해 설계를 결정하였다. 초기에는 서버 추론과 고정밀 검출 모델을 검토하였으나 환자 영상의 외부 전송 부담과 모바일 연산 한계를 확인하고 기기 내 추론과 경량 모델로 전환하였다.

결과물 및 특징 : 손 관절 추적과 도구 검출을 결합하여 BBT, NHPT, FMA-UE 3종의 자동채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작동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에 점수와 리포트가 생성되며, 치료사가 확인·수정해 최종 확정한다. 추론이 기기 내에서 이루어져 원본 영상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를 난이도에 반영하는 재활 훈련 게임 2종도 함께 구현해 평가와 훈련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동일 기준을 반복 적용해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고, 채점·기록에 쓰이던 시간을 환자 접촉에 돌릴 수 있다. 축적된 정량 데이터는 경과 기록과 기관 인증 대응의 근거가 되며, 환자는 회복 경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평가실과 외래는 물론 퇴원 후 가정에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자동·수기 채점 간 일치도 검증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치료사 보조도구로 한정한다.

주제어 : 작업치료 평가, 자동채점, 컴퓨터 비전, 온디바이스 추론, 상지 기능, 재활 게임, 캡스톤 디자인

우수 학위논문상
[석 · 박사]

2026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우수학위논문상



학술대회
전체 초록집

구분		저자 및 소속	지도교수	제목
우수학위	석사	김보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우희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Dysphagia Risk Assess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DRACE)의 한국판 개발 및 표준화 연구
		김주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유은영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작업 참여와 심리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수행코칭의 효과
		박민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학과	정윤희	생활기술 향상을 통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준비 : 작업치료적 접근
		최홍석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 학원 특수치료학과 작업 치료학전공	주유미	사법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박사	정선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홍덕기	LSVT(Lee Silverman Voice Treatment)-BIG for LIFE 중재가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작업수행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일대상연구
		차선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홍익표	지역사회 중고령자의 만성질환 보유 수 변화 궤적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분석: 잠재성장모형 활용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Dysphagia Risk Assess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DRACE)의 한국판 개발 및 표준화 연구

김보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일본에서 개발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Dysphagia Risk Assess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DRACE)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여, 국내 지역사회 연하재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하장애 선별검사(Korean version of dysphagia risk assess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K-DRACE)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는 K-DRACE의 한국판 개발과 표준화라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개발 단계에서는 번역 및 역번역을 거친 후 10명의 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의 내용타당도(CVI)를 검증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10명에게 내용이해도를 확인하여 평가지를 완성하였다. 표준화 단계에서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489명을 5개 연령군(i. 만 65~69세, ii. 만 70~74세, iii. 만 75~79세, iv. 만 80~84세, v. 만 85세 이상)으로 나누어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K-EAT-10 평가도구를 추가 적용해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고 ROC 분석을 통해 평가도구의 유용성 및 절단 값을 산출하였다.

결과 :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는 최종 .90, 노인들의 내용이해도는 4.88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4였으며, K-EAT-10과의 동시타당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K-DRACE를 통한 연하장애 위험군 판별 절단 값은 총점 4점 이상(민감도 .768, 특이도 .726)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집단은 평균 4점 이상을 기록해 연하장애 위험군에 속하였으며, 구강기 영역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된 K-DRACE는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등 삼킴의 전체 단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연하장애를 선별하는 데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도구이다. 본 연구는 8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선제적인 연하장애 관리와 구강기 기능에 맞춘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VFSS나 FEES와 같은 객관적인 도구적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자가 보고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연하장애, 지역사회 연하장애 평가, 연하장애 선별검사, 지역사회 거주 노인, 표준화 연구, DRACE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작업 참여와 심리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수행코칭의 효과

김주은*,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수행코칭(Occupational Performance Coaching; OPC)이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작업 참여와 기능손상,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ADHD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만 19~29세 성인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A-B-A' 단일대상연구설계를 적용하여 기초선(A), 중재(B), 재기초선(A') 단계로 진행하였다. 중재는 대상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참여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상황을 분석하여 스스로 전략과 행동계획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OPC를 화상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주 2회씩 4주간 총 8회기 실시하였다. 참여목표의 수행도와 만족도는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COPM)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기능손상은 Weiss 기능손상 척도(WFIRS), 자기효능감은 GSE-6, 지각된 스트레스는 PSS-14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여목표 수행도의 변화는 시각적 분석과 Tau-U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재 종료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 OPC 적용 이후 모든 대상자의 참여목표 수행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재기초선 단계에서도 향상된 수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ADHD로 인한 기능손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도 대상자들은 자신의 수행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 관리 능력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재 과정에서 형성한 전략을 다른 일상생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결론 : OPC는 성인 ADHD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참여목표의 수행을 향상시키고 ADHD로 인한 기능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기능 관련 변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ADHD를 대상으로 실제 일상생활의 참여목표를 중심으로 OPC를 적용한 초기 연구로서, 성인 ADHD의 작업 참여와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작업치료 중재로서 OPC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능손상, 비대면 중재, 성인 ADHD, 자기효능감, 작업수행코칭, 작업 참여, 지각된 스트레스

생활기술 향상을 통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준비: 작업치료적 접근

박민지*, 정윤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석사과정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기반 IADL 전환 프로그램을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생활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작업수행도, 만족도,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전북 전주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단일대상 ABA 반전 설계를 적용하였다. 목표 활동 설정을 위해 한국형 복합적 일상생활활동(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과 한국판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Korean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K-COPM)을 사용하였으며, K-COPM은 수행도·만족도 변화 측정에도 활용하였다. 목표 성취 수준은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ing, GAS), 자기결정력은 한국판 자기결정목록(Korean Self-Determination Inventory, K-SDI), 자기효능감은 한국판 자기효능감 척도(Korean Self-Efficacy Scale, K-SES)로 측정하였다. 개별 목표 활동에 대한 중재는 주 1회, 회기당 60분씩 1:1로 총 8주간 실시하였다. 기초선(A1)-중재(B)-재기초선(A2) 기간 동안 K-COPM과 GAS는 총 14회, K-SDI와 K-SES는 총 10회 반복 측정하였고, 중재 종료 후 참여자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 참여자별 목표 활동은 ‘요리하기’, ‘은행 이용하기’, ‘쇼핑하기’로 선정되었다. 양적 분석 결과, 모든 참여자에서 목표 작업의 수행도·만족도, 목표 성취도,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그 효과는 재기초선까지 유지되었다. K-COPM에서는 개별 목표 활동 외 다른 작업 영역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 생활기술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개별화된 접근의 실용성, 자기주도적 실행과 참여 증가, 실제 생활에서의 기술 적용 및 일반화, 보호자의 인식과 기대 변화 등이 확인되어 양적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결론 : 작업치료 기반 IADL 전환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생활기술 향상과 전환 준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개별화된 목표 설정과 수행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제·환경 조정, 실제 환경에서의 반복 수행 경험 제공 등 작업치료적 접근은 작업치료사가 전환기 중재의 핵심 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내 전환 프로그램이 진로·직업 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며 IADL 영역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환지원에서 생활기술 중심 접근과 IEP 및 ITP 내 실제 생활 참여 목표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전환지원체계에서 작업치료사의 제도적 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발달장애 청소년, 전환 프로그램, 생활기술, 작업치료, IADL, 자기결정력, 자기효능감

사법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최홍석*, 주유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학과 작업치료학전공 석사과정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특수치료학과 작업치료학전공 대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치료와 감호가 공존하는 사법정신의료기관 내 작업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법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자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자문화기술지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기억자료, 자기성찰 자료, 사진·문서·이메일 등의 문화적 인공물 및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반복적 읽기, 분석적 메모 작성 및 1차·2차·3차 코딩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간 삼각검증, 동료검토 및 지도교수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 연구자의 임상경험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낮선 환경 속에서 발견해가는 나의 역할’에서는 병동 파견 초기의 두려움과 책임감을 경험하며 병실 안에서의 일상생활훈련, 시각 스케줄 제작 및 AI 기반 행동분석 업무 등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사법정신의료기관 환자를 마주하며 나타난 양가적 시선’에서는 환자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동시에 범죄경력을 인식하며 윤리적 갈등과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불안정한 위치 속에서 나타난 심리적 요동’에서는 고용환경, 수련생과의 관계, 인정욕구 및 실적 중심 환경에서의 내적 동요를 성찰하며 실무자로서의 주체성을 재확인하였다. 넷째, ‘사법정신의료기관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신체적 접근, 비강압적·인간중심적 실천 및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의 작업치료적 재해석을 통해 작업치료의 역할과 가치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범주는 ‘적응 단계’, ‘유능 단계’, ‘숙련 단계’로 통합되었으며, 전문직 정체성이 갈등과 성찰을 통해 형성·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결론 : 사법정신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자기성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재구성되는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생애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간중심적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법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정신건강 및 사법 분야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사법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사, 전문직 정체성, 사법분야 작업치료, 자문화기술지

LSVT(Lee Silverman Voice Treatment)-BIG for LIFE 중재가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작업수행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일대상연구

정선아*, 홍덕기**, 최유임**, 우희순**, 민경철**, 박강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LSVT(Lee Silverman Voice Treatment)-BIG for LIFE 중재가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작업수행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단일대상연구 중 ABA 중재 제거 설계를 적용하여 기초선 평가 5회, 중재 평가 8회, 기초선 회기 5회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LSVT-BIG 중재를 모두 완료한 3명으로 LSVT-BIG for LIFE 중재를 1회에 60분, 주 2회, 4주 동안 총 8회기를 제공하였다. 신체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d Up and Go; TUG),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and Block Test; BBT), 통합형 파킨슨병 평가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를 사용하였다. 작업수행 평가는 캐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삶의 질 평가는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39(PDQ-39)를 사용하였다.

결과 : 본 연구 결과 4주간 8회기 적용한 LSVT-BIG for LIFE 중재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작업수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재의 효과는 향상되거나 유지되었다. 또한 삶의 질에서는 일부 하위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 또는 감소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가 유지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LSVT-BIG for LIFE 중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있어 LSVT-BIG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동 수행 및 기능 유지에 효과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대상자와 확장된 중재 기간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근거 기반의 맞춤형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LSVT-BIG 중재 이후 사후 프로그램으로 LSVT-BIG for LIFE 중재를 적용한 연구로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삶의 질, 신체기능, 작업수행, 파킨슨병, LSVT-BIG for LIFE

지역사회 중고령자의 만성질환 보유 수 변화 궤적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분석: 잠재성장모형 활용

차선아*, 김종배**, 민정철***, 서상민****, 배수영*****,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박사후연구원

국문초록

목적: OTPF-4에서 독립된 작업영역으로 제시된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만성질환 변화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RQoL)의 시간에 따른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에서 작업치료의 역할과 임상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2018년, 2020년, 2022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결측이 없는 중고령자 5,733명을 분석하였다. 만성질환 수는 의사에게 진단받은 13개 만성질환의 합으로 산출하였고, OHRQoL은 GOHAI의 신체기능, 통증·불편감, 심리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수의 초기수준과 변화율 및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OHRQoL의 세 영역은 각 시점의 시간가변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근로 여부, 교육수준을 통제하여 각 시점에서 OHRQoL과 만성질환 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만성질환 수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선형 증가가 확인되었다. 초기수준과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여 개인 간 차이가 있었고, 초기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이후 증가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신체기능은 2020년과 2022년 만성질환 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통증·불편감은 2022년, 심리사회 영역은 2020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중고령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OHRQoL을 단일한 구강건강 지표로 보기보다 신체기능, 통증·불편감, 심리사회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체기능은 신체활동, 영양 관리 및 개인용 도구 관리와 관련되고, 통증·불편감은 증상 및 상태 관리, 건강관리시스템과 의사소통, 약물 관리와 관련 있으며, 심리사회 영역은 사회적 및 정서적 건강증진 및 유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만성질환 관리 과정에서 기능적, 증상적, 심리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건강관리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작업치료에서는 OHRQoL 관련 요인을 OTPF-4의 건강관리 영역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변화 양상에 따라 구강기능 증진 및 연하재활, 통증과 불편감 관리, 사회참여 촉진 등의 맞춤형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과 지속적인 자기관리 및 건강 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OTPF-4, 건강관리, 중고령자, 만성질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잠재성장모형, 작업치료

구두발표/포스터

2026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구두발표/포스터



학술대회
전체 초록집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구두-01	Sarah Kim*, Kelly McGloon**, Lei Han*, Ickpyo H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s, College of Health Professions,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care Science, Yonsei University	Path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구두-02	이호경*,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치매, 운동 및 일상생활활동 변화가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활용하여
구두-03	윤소윤*,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비약물적 중재가 중증정신질환 성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고찰
구두-04	윤주만*, 최석환**, 김진성**, 홍익표**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장애수용이 기능 및 웰빙 결과에 미치는 종단적 차등 연관성: 전통적 회귀분석과 해석가능 머신러닝의 비교
구두-05	박건형*, 이승민*, 조윤하*, 이현진*, 박강현**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스마트폰 규제를 넘어 작업균형(Occupational Balance)관점으로: 한국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구두-06	이주은*, 이은총*, 최해찬*, 박강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학생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존재하되 참여하지 않는: 은둔 청년의 작업박탈 유형에 관한 연구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구두-07	김성훈*, 신용균** *아이엠재활병원 작업치료사,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책임연구원	회복기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환측 손 기능과 이동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후향적 단면연구
구두-08	한경주*, 박지혁**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석사 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청년의 문제적 SNS 사용, 라이프스타일 및 중재 요구도: 횡단적 설문연구
구두-09	한벼리*,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스마트홈 센서와 Occupational Questionnaire를 활용한 재가 돌봄받는자 가정의 가족돌봄 작업패턴 탐색: 공간 활동률과 침대 점유율의 중재 전후 초기 관찰
구두-10	박경영*, 함예진*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농촌지역 경로당 여성 노인을 위한 6주 모듈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효과: 단일군 사전-사후 예비연구
구두-11	황모세*, 유은영**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노인의 음성 음향 특성을 활용한 노년기 우울 선별 가능성 탐색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포스터 -01	SU NAN*,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한국과 중국 장기요양제도에서 작업치료의 위치 비교: Lifestyle-DEPER 모델을 중심으로
포스터 -02	강현구*, 배수영**,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증진을 위한 작업 중재 프로그램: 그룹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토콜
포스터 -03	김미림* *세라 아동발달연구소 & 사회성 방과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현장에서의 OT·ABA 통합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적응행동 및 도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포스터 -04	김민정*, 홍익표**,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삼김재활 중심 실무 경험과 초기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인식 : 현상학적 질적연구
포스터 -05	김성원*, 정승희*, 한레이*, 윤설하**,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재활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환자보고결과 측정도구(PROMs) 측정속성에 대한 COSMIN 기반 체계적 고찰
포스터 -06	김주은*, 서은혜**, 엄유빈*, 서희주*, 장성우*,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청소년의 수면·학습·여가 불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포스터 -07	김지훈*, 이다영*, 은형주*, 오인수*,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각처리 및 감각통합 관련 연구의 체계적 고찰
포스터 -08	김현지*,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fNIRS 기반 인간-AI 상호작용의 인지·정서적 뇌 활성화 특성: 체계적 문헌고찰
포스터 -09	김현진*, 김예은*, 신채윤*, 심재린*, 장서윤*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정책 삼각형 모델을 활용한 해외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현황 비교연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포스터 -10	남희원*,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성인 ADHD의 실행기능 과제 수행 중 전전두엽 활성화: fNIRS 연구의 체계적 고찰
포스터 -11	민경철*, 장신원*, 구진모**, 김은영***, 이유빈***, 이주아***, 장혜원***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지역사회 노인 연하 및 구강기능 실태
포스터 -12	박예경*, 배수영**,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LSVT-BIG 변형 그룹 중재가 활동수행 및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프로토콜
포스터 -13	서은혜*,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의 학교준비도 평가도구에 대한 요구도 조사
포스터 -14	서희주*, 서은혜*, 김주은*, 엄유빈*, 장성우*,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행동활성화 중재의 연구 동향: 계량서지학적 분석
포스터 -15	신지연* *성모자애복지관	ICF 환경요인 관점에서 개념화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upport Zone) 기반 지역사회 작업치료 중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활동·참여에 관한 실천 사례
포스터 -16	안예빈*, 권수미*, 손지효*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포스터 -17	양현*, 박지혁**, 한대성***, 박혜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및 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타당성 연구
포스터 -18	양휘우*, 배수영**,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중재 연구

번호	저자 및 소속	제목
포스터 -19	오윤호*,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디지털 매체 기반 연하재활치료가 뇌졸중 후 연하장애 환자의 연하기능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고찰
포스터 -20	오인수*, 김지훈*, 이다영*, 은형주*,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장애아동 부모 대상 작업치료 중재의 분류와 효과: 무작위 대조시험의 체계적 고찰
포스터 -21	윤설하*, 정승희**, 김성원**, 한레이**,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작업치료 연구 동향: 계량서지학적 분석
포스터 -22	은형주*, 이다영*, 김지훈*, 오인수*,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학령전기 발달장애 아동 대상 상용 모바일 인지훈련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특성 및 작업치료 관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
포스터 -23	이다영*, 은형주*, 오인수*, 김지훈*,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노년기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포스터 -24	이민재*, 이선민**, 최예진**, 황하연**, 김승현**, 이해정*** *충남도립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ICF 기반 국외 기능중심 장애통계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포스터 -25	조수빈*, 김가은*, 정소미*, 채지희*, 황호성**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척수손상 환자의 보조공학 중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포스터 -26	박경영*, 박서호**, 유지율**, 이예진**, 장우재**, 조정원**, 주형우**, 함예진*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과의존 예방 교육의 효과: 사전-사후 비교 연구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th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arah Kim*, Kelly McGloin**, Lei Han*, Ickpyo H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s, College of Health Professions,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care Science, Yonse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o examine whether social interactions, including family, parent-child, and peer interactions, are associated with first-grade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and school readiness.

Methods : This study used a secondary longitudinal analysis of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801 children aged 72-79 months ($M = 75.1$, $SD = 1.4$) in a community-based national cohort. Social interactions,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and school readiness were measured at Wave 7, and teacher-rate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at Wave 8.

Results : The model showed acceptable-to-good fit. Peer and family interac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ompetence ($\beta = .62$, $p < .001$; $\beta = .06$, $p = .026$), whereas parent-child and family interac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beta = .08$, $p = .031$; $\beta = .09$, $p = .015$). School readin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ompetence ($\beta = .68$, $p < .001$) and self-esteem ($\beta = .05$, $p = .030$), with an additional direct path from peer interaction ($\beta = .16$, $p < .001$).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chool readiness ($\beta = .17$, $p < .001$), peer interaction ($\beta = .15$, $p < .001$), and family interaction ($\beta = .07$, $p = .039$).

Conclusion : Pre-entry peer and family interac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st-grade school adjustment, with peer interaction showing the strongest associ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before school entry may facilitate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Keywords : parent-child interaction, peer interaction, family interaction, school readiness, school adjustment, preschool children, path analysis

치매, 운동 및 일상생활활동 변화가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활용하여

이호경*,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자료를 이용하여 치매, 운동 및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KLoSA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로 총 4,12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치매, 운동 여부 및 ADL은 2020년, 2022년,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점수(change score)를 산출하였으며, 기초시점 ADL과 각 변수의 변화가 근감소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흡연, 음주 및 체질량지수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였다.

결과 : 기초시점 ADL($\beta = 0.071$, $p = .0003$), 치매 변화($\beta = 0.056$, $p = .003$), ADL 변화($\beta = 0.082$, $p < .001$)는 근감소증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운동 변화는 근감소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beta = -0.017$, $p = .427$). 또한 남성($\beta = 0.129$, $p < .001$), 높은 연령($\beta = 0.369$, $p < .001$)은 근감소증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교육수준($\beta = -0.094$, $p < .001$)과 체질량지수($\beta = -0.053$, $p = .010$)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에는 운동 변화에 비해 치매의 진행과 일상생활활동의 저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증진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활동 감소를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업치료 중심의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기능적 요인을 포함한 장기 종단연구를 통해 근감소증의 발생기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근감소증, 치매, 일상생활활동, 운동, KLoSA, 종단연구

비약물적 중재가 중증정신질환 성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고찰

윤소윤*,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중증정신질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시행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중재가 사회참여 및 사회참여 관련 기능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정신질환 성인으로 정의하였다. 중재는 작업치료, 사회기술훈련,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원고용 및 직업재활, 인지행동 기반 사회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 비약물적 중재를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변수로는 사회참여,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직업 및 교육 참여, 일상생활활동을 포함하였다. 문헌 검색은 RISS, KISS, PubMed, ScienceDirect, Web of Science, Embas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015년1월부터2025년1월까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출판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문헌 선정은 PRISMA 2020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은 연구설계, 대상자 특성, 중재 유형, 비교 조건, 사회참여 관련 결과변수 및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최종 분석에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군집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및 예비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포함한 총 10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대상자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이용자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지원고용에 기반한 직업재활 중재는 취업과 직업활동 참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회복치료는 구조화된 일상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작업 기반 중재와 가정 기반 작업치료는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중재, 마음챙김 기반 심리교육 및 인지행동 사회기술훈련은 사회참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인지적·심리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고찰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목표가 증상 감소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생활, 역할 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직업 및 교육활동 참여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정된 연구 간 대상자 특성, 중재 구성 및 평가도구의 이질성이 높아 중재 효과를 단일 결과 지표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참여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중증정신질환, 사회참여, 정신사회재활, 작업치료, 직업재활, 체계적 문헌고찰

장애수용이 기능 및 웰빙 결과에 미치는 종단적 차등 연관성: 전통적 회귀분석과 해석가능 머신러닝의 비교

윤주만*, 최석환**, 김진성**, 홍익표*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가족건강성이 2년 후 네 가지 기능·웰빙 결과(보조기기 필요충족, 자립수준, 사회참여,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종단적으로 규명하고, 그 기여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관련 영역에 따라 어떻게 차등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석가능 머신러닝이 시사한 비선형 패턴을 후속 통계 검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 장애인삶 패널조사(DaLD)의 4차(2021년, 기저)와 6차(2023년,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예측변수·공변량·기저값에 결측이 없는 1,17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핵심 예측변수는 장애수용과 가족건강성이며, 공변량으로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혼인상태, 교육수준,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및 각 결과의 4차 기저값을 통제하였다.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전통적 회귀분석(Mplus, MLR 추정)으로 장애수용의 연관 강도(표준화 β ,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둘째, 벌점화 회귀(penalized GLM)를 주 모형으로, 트리 기반 모형을 비교군으로 하여 반복 5-겹 교차검증(20회 반복)을 통해 고유 증분 기여($\Delta R^2/\Delta AUC$)를 산출하였고, SHAP을 이용하여 예측변수의 기여패턴을 탐색하였다. 셋째, SHAP이 시사한 비선형성을 2차항 및 구간별 선형 스플라인으로 검정하였다.

결과 : 장애수용은 사회참여($\beta=0.195$), 삶의 만족도($\beta=0.148$), 자립수준($\beta=0.067$)과 유의하게 연관되었으나(모두 $p \leq .001$), 보조기기 필요충족과는 유의하지 않았다($OR=1.45$, $p=.094$). 고유 증분 기여도 영역에 따라 뚜렷이 달랐다(사회참여 $\Delta R^2=0.027$, 삶의 만족도 $\Delta R^2=0.015$, 자립수준 $\Delta R^2=0.003$, 보조기기 $\Delta AUC=0.002$). 쌍대비교에서 자립수준에 대한 연관성은 사회참여 및 삶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약했는데(모두 $p<.01$), 자립수준은 4차-6차 자기상관이 $r = .78$ 로 높아, 기저값을 포함한 모형에서 추가 예측 여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가족건강성은 보조기기 필요충족과만 유의하게 연관되었다($OR=1.03$, $p=.005$). SHAP은 사회참여에서 약 2.0을 임계로 하는 비선형 패턴을 시사하였으나 2차항($p=.562$)과 스플라인($p=.712$)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자립수준의 2차항은 유의하였으나($p=.008$) 설명량 증가는 .001에 그쳤다. 예측 성능은 벌점화 회귀가 네 결과 중 세 결과에서 우수하였다.

결론 : 장애수용은 여러 기능·웰빙 영역과 연관되나, 연관 강도와 고유 기여 모두 ICF 관련 영역에 따라 차등적이었으며, 과거 상태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참여 및 삶의 만족도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보조기기 필요충족은 장애수용보다 경제적 어려움·장애정도·가족건강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심리적 적응과 물질적·관계적 자원이 서로 다른 영역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참여에서는 유의한 비선형성이나 임계값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형 사양이 자료와 일관되었다. 아울러 머신러닝이 시사한 비선형 패턴이 후속통계 검정에서 재현되지 않았고 유의한 비선형성도 실질적 설명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머신러닝 해석이 가설 생성에는 유용하되 후속 통계 분석과 병행되어야 하고 유의성과 실질적 기여를 구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애수용, 가족건강성, 장애인삶 패널조사,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머신러닝, 사회참여, 종단연구

스마트폰 규제를 넘어 작업균형(Occupational Balance) 관점으로: 한국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잠재프로파일분석

박건형*, 이승민*, 조윤하*, 이현진*, 박강현**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균형(Occupational Balance)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도출된 유형별 스마트폰 이용 양상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에서 주요 변수에 결측이 없는 4,24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 식생활의 4개 영역에서 7개 지표변수를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프로파일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불안(GAD-7), 우울감 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를 BCH 및 DCAT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Mplus 8.4와 SPSS 25를 사용하였다.

결과 : 4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정적 작업 중심형'(63.3%), '경도 활동 혼합형'(20.8%), '동적 작업 실천형'(9.9%), '고강도 활동 주도형'(6.0%).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정적 작업 중심형이 가장 높았으며(M=4.54hr), 경도 활동 혼합형 및 고강도 활동 주도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 총점은 고강도 활동 주도형이 나머지 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신체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프로파일일수록 선형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불안(GAD-7)과 우울감 경험은 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분포에서는 정적 작업 중심형의 여학생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고, 고강도 활동 주도형에서는 9.3%에 불과하였다.

결론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 악화는 신체활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정적인 여가로 얹힌 라이프스타일의 구조적 붕괴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스마트폰 규제 중심의 현행 담론을 넘어, 청소년의 작업균형 회복을 위한 예방적 작업치료 개입과 성인지적 신체활동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작업균형, 청소년, 라이프스타일, 잠재프로파일분석, 스마트폰, 정신건강

존재하지 참여하지 않는: 은둔 청년의 작업박탈 유형에 관한 연구

이주은*, 이은총*, 최해찬*, 박강현**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학생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은둔 청년의 작업수행 특성을 기반으로 작업박탈의 잠재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인구 사회학적·심리적·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작업치료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 은둔 청년 5,15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면시간, 일상생활활동(ADL),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여가 활동을 작업수행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유형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년은 ‘극단적 과수면·복합기능저하형(5.4%),’ ‘과수면·기능저하형(34.8%),’ ‘기능유지형(59.8%)’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극단적 과수면·복합기능저하형은 수면시간이 가장 길고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과수면·기능저하형은 중간 수준의 기능 저하를 나타냈다. 기능유지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수행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고립 상태에 속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유형 간 사회경제적 수준 인식, 가족 구조, 서비스 필요도, 일상 행동 및 상담·치료 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고립·은둔 청년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작업수행 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수면 패턴과 일상생활 수행 수준은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업박탈 및 작업불균형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입은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리듬 회복, 기능 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단계적이고 맞춤형 전략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고립·은둔 청년, 작업박탈, 작업수행, 잠재계층분석, 작업치료

회복기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환측 손 기능과 이동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후향적 단면연구

김성훈*, 신용균**

*아이엠재활병원 작업치료사,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문초록

목적: 뇌졸중 후 회복기 환자의 기능 회복 과정에서 손 기능과 이동능력은 중요한 평가 영역이다. 환측 손 기능 저하는 상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및 기능적 활동과 관련된다. 그러나 환측 손 기능과 이동능력 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기 뇌졸중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환측 손 기능과 이동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은 뇌졸중 편마비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단면연구이다. 대상자는 재활치료 기간 중 환측 손 기능 및 이동능력 평가 자료가 수집된 환자로 선정하였다. 환측 손 기능은 Hand Function Test (HFT)의 세부 항목인 악력 (Grip strength)과 집기력 (Tip pinch, Three-jaw chuck pinch, Lateral pinch)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동능력은 10-Meter Walk Test (10MWT), Timed Up and Go Test (TUG), Dynamic Gait Index (DGI)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측 손 기능과 이동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악력과 집기력(Tip pinch, Three-jaw chuck pinch, Lateral pinch)은 10MWT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311 \sim -0.357$, $p < 0.01$), TUG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352 \sim -0.402$, $p < 0.01$). 또한 악력과 집기력은 DG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288 \sim 0.355$, $p < 0.01$).

결론: 회복기 뇌졸중 환자에서 환측 손 기능은 보행 속도, 기능적 이동능력 및 동적 균형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환측 손 기능 평가가 회복기 뇌졸중 환자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 영역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뇌졸중, 편마비, 손 기능, Hand Function Test, 이동능력, 후향적 단면연구

청년의 문제적 SNS 사용, 라이프스타일 및 중재 요구도: 횡단적 설문연구

한검주*, 박지혁**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석사 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청년의 문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사용 양상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적 SNS 사용과 라이프스타일 및 심리사회적 건강 변수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Lifestyle-DEPER의 라이프스타일 형성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적 SNS 사용 청년에게 적합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중재 요구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SNS를 사용하는 만 19~26세 청년 26명을 편의표집하여 온라인 횡단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SNS 사용 특성, 문제적 SNS 사용, 라이프스타일,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삶의 질,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중재 요구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활동적 생활(Active), 균형 있는 생활(Balanced), 관계가 연결된 생활(Connected),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생활(Diverse)을 평가하는 YLP-ABC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제적 SNS 사용은 24문항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점 63점 이상을 문제적 사용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Lifestyle-DEPER는 연구변수 선정과 결과 해석 및 후속 중재 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Spearman 순위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 중 약 3분의 1이 문제적 SNS 사용 기준에 해당하였다. 문제적 SNS 사용은 분석된 일상생활 관련 변수 중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78$). 대상자 중 16명(61.5%)은 건강한 SNS 사용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중재 요구 영역은 SNS 사용시간 조절, 수면 개선 및 신체활동 증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문제적 SNS 사용이 단순한 사용시간의 증가를 넘어 일상생활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 : 청년의 문제적 SNS 사용은 스크린타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라이프스타일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재는 SNS 사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SNS 사용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대체된 건강행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Lifestyle-DEPER 관점에서 문제적 SNS 사용 청년의 중재 목표와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탐색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소규모 횡단적 설문연구이므로 Lifestyle-DEPER 모델 자체를 검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향후 DEPER 구성요인을 직접 측정한 대규모 및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문제적 SNS 사용, 청년, 라이프스타일, 중재 요구도, 횡단적 설문연구

스마트홈 센서와 Occupational Questionnaire를 활용한 재가 돌봄가정의 가족돌봄 작업패턴 탐색: 공간 활동률과 침대 점유율의 중재 전후 초기 관찰

한버리*,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국문초록

목적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재가 돌봄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상 노인 및 장애인 돌보는 가정의 가족 돌봄자는 반복적이고 분절적인 돌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체위변경,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이송과 같은 돌봄작업은 침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야간에도 돌봄자의 수면과 휴식을 중단시키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돌봄작업 패턴 연구는 주관적 보고에 주로 의존해 왔다. 주관적 보고는 돌봄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짧은 확인, 반복적 출입, 야간 개입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송돌봄기기와 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돌봄기기를 중재로 적용하고, Occupational Questionnaire(OQ)와 스마트홈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가 돌봄가정의 작업패턴을 탐색하였다. 또한 중재 전후의 공간 활동률과 침대 점유율을 관찰하여 센서 기반 보조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외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두 가정을 대상으로 OQ를 실시하고, 거실·침실·욕실에 설치한 Passive Infrared(PIR) 센서와 수면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중재 전인 2026년 5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와 중재 후인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였다. 두 가정 모두 이송돌봄기기와 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돌봄기기를 적용하였다. 사후 OQ는 중재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본 분석 시점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재 전 OQ는 하루 일과 중 돌봄활동, 만족도 및 어려움이 큰 활동을 중심으로 주요 돌봄작업과 작업공간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PIR 센서 데이터로 시간대별 공간 활동률을 산출하고, 수면센서 데이터로 돌봄자와 돌봄받는자의 침대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OQ에서 보고된 주요 돌봄작업과 센서 기반 지표를 함께 검토하여 중재 전후의 초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든 센서 지표는 돌봄작업을 직접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 해석하였다.

결과 : 두 가정 모두 OQ에서 체위변경,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이송 등 주요 돌봄작업이 침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가구 1의 침실 활동률은 중재 전 $24.5 \pm 6.2\%$ 에서 중재 후 $8.4 \pm 3.5\%$ 로 감소하였고, 거실 활동률은 $6.4 \pm 3.1\%$ 에서 $16.3 \pm 2.5\%$ 로 증가하였다. 돌봄받는자의 19~21시 침대 점유율은 $55.1 \pm 31.5\%$ 에서 $43.6 \pm 37.1\%$ 로 감소하였다. 가구 2의 침실 활동률은 중재 전 $19.3 \pm 5.3\%$, 중재 후 $21.5 \pm 2.6\%$ 였으며, 돌봄받는자의 17~19시 침대 점유율은 $74.7 \pm 24.7\%$ 에서 $63.3 \pm 24.9\%$ 로 감소하였다.

결론 : 스마트홈 센서는 OQ를 통해 파악한 재가 돌봄 맥락을 보완하고, 시간대별 공간 활동과 침대 점유의 초기 변화를 관찰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루 전체 평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정 시간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가구별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달랐으며, 대상 가구가 두 가구에 불과하고 중재 후 관찰기간이 짧으며 사후 OQ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찰된 변화를 돌봄기기의 효과, 돌봄부담의 감소 또는 돌봄작업 패턴의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향후 충분한 기간의 센서 데이터와 사후 OQ를 확보하고, 관찰지표 기반 동작정보 등 직접적인 작업수행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센서 기반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재가돌봄, 돌봄자, Occupational Questionnaire, 스마트홈 센서, 공간 활동률, 침대 점유율

본 연구는 국립재활원 「수요자중심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RS-2023-KH13825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농촌지역 경로당 여성 노인을 위한 6주 모듈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효과: 단일군 사전-사후 예비연구

박경영*, 함예진*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5개의 모듈(신체활동, 인지활동, 건강한 식생활, 수면 및 통증, 심혈관 건강관리)로 이루어진 6주 웰니스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신체기능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경로당 이용 노인 13명이었으며, 프로그램은 주 1회 1시간, 총 6주간 운영되었다. 중재는 신체활동, 건강한 식생활, 손사용 및 인지활동, 수면·통증 관리, 심혈관 건강교육의 5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전후 상지 근력, 하지기능, 균형, 수면, 통증, 식생활 및 생활습관을 평가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paired t-test, 순서형 변수는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자는 총 13명의 여성 노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83.1 ± 8.1 세였다. 사전·사후 비교 결과, 상지 근력 4개 지표와 총 수면시간, 전반적 수면의 질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 < .05$). 하지기능, 균형, 통증 강도, 건강식생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하지기능과 건강식생활은 일부 긍정적 변화 양상을 보였다.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가 8명(61.5%)에서 10명(76.9%)으로,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대상자가 7명(53.8%)에서 9명(69.2%)으로 증가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았으며 재참여 의사는 91.7%였다.

결론 :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여성 노인의 상지 근력과 수면, 건강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사용 활동과 실천 중심 건강교육을 결합한 작업치료적 접근은 지역사회 노인의 기능 유지와 건강실천 동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농촌지역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작업치료 중재, 모듈형 프로그램, 괴산군

노인의 음성 음향 특성을 활용한 노년기 우울 선별 가능성 탐색

황모세*, 유은영**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노년기 우울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과 사회참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맥락에서 수집한 음성의 음향 특성이 노년기 우울을 선별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 디지털 정신건강 리빙랩 기반 BEODEUL 코호트의 기초자료를 활용한 탐색적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평균 연령 70.5 ± 9.6 세의 노인 53명(남성20명, 여성33명)이었으며, PHQ-9 점수 10점 이상을 우울군, 10점 미만을 비우울군으로 구분하였다. 연결 확인, 기분 보고 및 문장 반복 과제에서 수집된 음성을 eGeMAPS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자연스러운 음량을 유지하기 위해 음량 정규화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성별로 구분하여 우울군과 비우울군의 음향특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 남성에서는 우울군이 비우울군보다 평균 음량, 스펙트럴 플렉스 변이, MFCC1 변이, shimmer 변이 및 F1 진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더 크고 불안정하며 공명성이 낮은 음성 양상이 관찰되었다($p < .05$). 여성에서는 우울군이 비우울군보다 음량 피크 빈도, 스펙트럴 플렉스 변이, MFCC2 변이, shimmer 변이 및 F1 포먼트 대역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음향특성이 성별에 따라 일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 노인의 일상 음성에 포함된 음향 특성은 노년기 우울을 보조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비침습적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치료적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및 재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작업수행·사회참여·삶의 질에 대한 추가 평가와 중재로 연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소규모 탐색적 연구이므로, 향후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성별 및 기초 음성 차이를 고려한 예측모형의 검증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년기 우울, 음성 음향특성, 디지털 바이오마커, 정신건강 선별, 작업치료

한국과 중국 장기요양제도에서 작업치료의 위치 비교: Lifestyle-DEPER 모델을 중심으로

SU NAN*,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한국은 2008년, 중국은 2026년 장기요양 사회보험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여 양국 제도 간에는 18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 급여체계에서 작업치료가 어떠한 제도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는지 비교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Lifestyle-DEPER 모델을 분석틀로 양국 급여체계를 비교하여, 작업치료의 제도적 위치와 그 함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양국의 현행 정책문서 원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중국은 「국가 장기간호보험 서비스항목 목록(시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대전」(2022년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36개 서비스항목을 Lifestyle-DEPER의 다섯 요소에 귀속시켰으며, 대상자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항목은 실행이 아니라 건강자원의 대체 공급으로 판정하는 규칙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결과 : 중국 36개 항목의 요소별 분포는 자원 29개(80.6%), 개인적 요소 4개(11.1%), 실행 2개(5.6%), 환경 1개(2.8%), 결정 0개(0.0%)였다. 개인적 요소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은 모두 역량에 한정되었으며, 36개 항목의 추천서비스인력란에는 특정 보건의료 직종의 명칭이 한 차례도 명시되지 않았다. 「직업분류대전」에서 작업치료는 독립된 직업이 아니라 재활치료사의 기법 중 하나로 언급되었고, 재활치료사는 전문기술인력이 아닌 사회생산 및 생활서비스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형 급여의 장기요양요원으로 규정되어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감액 대상 직종에 포함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 자격 직종 중 하나로서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다만 방문형 재가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론 : 중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작업치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주체를 결여하고 있었다. 양국의 결정적 차이는 계획 수립 권한의 소재에 있으며, 이는 작업치료의 제도적 진입 경로 및 고용 기회의 형성과 직결된다. 한국 역시 수급자의 욕구를 계획 수립의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급여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 결정 단계의 제도적 공백은 양국이 공유하는 과제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국제비교, 라이프스타일, 작업치료, 장기요양보험, 정책분석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증진을 위한 작업 중재 프로그램: 그룹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토콜

강현구*, 배수영**,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조현병 환자는 정서 인식, 마음이론 및 사회적 지각과 같은 사회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대인 관계 형성, 직업 유지 및 지역사회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과 장기적인 기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그룹 기반 작업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기능 증진을 위한 그룹 기반 작업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토콜 연구로, 본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군 사전-사후(pretest-posttest) 예비연구(single-group pilot study)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재 대상자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의사소통과 지시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선정한다. 양성 및 음성 증후군 평가와 사회인지평가, 한국판 마음 눈 읽기 검사(K-RMET)를 실시하여 중재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 분석한다.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며, 사회인지의 주요 영역을 바탕으로 1) 정서 인식 및 기초 표현, 2) 마음이론 및 타인의 의도 파악, 3) 귀인편향 수정 및 의사소통, 4) 사회적 맥락 적용 및 역할 수행의 네 영역을 각 3회기씩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각 회기에는 감정 및 사회적 단서를 활용한 과제, 상황 분석, 의사소통 훈련과 역할 활동을 포함하며, 실제 대인 관계 및 지역사회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은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특성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반영한 체계적인 그룹 기반 작업중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인지의 주요 영역을 실제 대인관계, 직업 및 지역사회 역할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프로토콜은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미 있는 작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조현병, 사회인지, 사회인지능력, 작업 중재, 중재 프로토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현장에서의 OT·ABA 통합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적응행동 및 도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미림*

*세라 아동발달연구소 & 사회성 방과후

국문초록

목적 : 단일 전문 분야 중심의 기존 방과후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복합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OT)와 응용행동분석(ABA)을 통합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응행동 향상 및 도전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바우처 서비스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거 기반 통합 중재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과후 교실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만 6~18세 청소년 10명(N=10)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주 14시간의 통합 중재는 PEERS 기반 집단 사회성 프로그램(주6시간)과 음악·미술·체육·자조기술·요리로 구성된 그룹 기반 개별화 예체능 프로그램(주8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전 회기에 걸쳐 작업치료사(OT) 및 행동분석가(BCBA) 이중 자격을 보유한 슈퍼바이저가 상주하며 매 회기 데이터 수집과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적응행동은 한국판 적응행동검사-개정판(K-SIB-R), 도전행동은 한국판 자폐스펙트럼장애 도전행동 척도(K-CSCB)로 측정하였으며, 소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적응행동(K-SIB-R) 총점이 사전 285.20점에서 사후 302.7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Z = -2.14, p = .032$). 하위 영역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작업 기술, 식사 및 음식 준비 영역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도전행동(K-CSCB)은 사전 133.80점에서 사후 118.90점으로 감소하는 긍정적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p = .068$). 참여자별 사분면 분석 결과, 70% 이상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적응행동 향상과 도전행동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통합적 개선 사례도 확인되었다.

결론 : OT·ABA 통합 중재 모델은 바우처 기반 방과후 서비스 현장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의 적응행동 향상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작업치료사와 행동분석가가 긴밀히 협업하는 다학제 팀 체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모델임을 시사한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단순 돌봄을 넘어 전문적 통합 중재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다학제 전문 인력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작업치료, 응용행동분석,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적응행동, 도전행동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삼킴재활 중심 실무 경험과 조기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인식 : 현상학적 질적연구

김민정*, 홍익표**,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는 삼킴재활 중심 실무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조기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참여자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 5명으로,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전사 후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자료 분석 결과, 총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는 (1) 삼킴재활에 집중된 신생아중환자실 작업치료 실무 경험, (2) 수유 이전 단계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3) 삼킴재활 외 조기 작업치료 가능성과 실제적 제한, (4) 장기 재원 아동에서 인식되는 조기 작업치료 중재 필요성, (5) 조기 작업치료 적용을 제한하는 제도, 인식, 현장의 장벽, (6) 조기 작업치료 중재 프로토콜 구축에 대한 요구였다. 참여자들은 삼킴재활 중심의 처방 구조 속에서 조기 작업치료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력 부족, 처방 중심 구조, 다학제 팀 내 역할 인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 작업치료사의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삼킴재활 중심 실무 구조의 한계와 조기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작업치료 중재가 명확한 프로토콜과 제도적·구조적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환경에 적합한 조기 작업치료 중재 프로토콜 개발 및 중환자 작업치료 수가와 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신생아중환자실, 작업치료, 삼킴재활, 조기 작업치료 중재, 현상학적 질적연구

재활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환자보고결과 측정도구(PROMs) 측정속성에 대한 COSMIN 기반 체계적 고찰

김성원*, 정승희*, 한레이*, 윤설하**,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재활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환자보고결과 측정도구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의 측정속성을 COSMIN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Web of Science, PubMed, MEDLINE 및 Scopus에서 검색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2026년 4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문헌 선정은 PRISMA 2020 및 PRISMA-COSMIN for Outcome Measurement Instruments 2024 보고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21편의 문헌에서 22건의 연구-도구 분석 단위를 확인하였다. 선정 문헌의 비뚤림위험, 측정속성 결과 및 근거의 확실성을 COSMIN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고, 도구별 권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 최종 선정된 문헌에서 확인된 지역사회 복귀 관련 PROMs는 RNLI/mRNLI, CIM, CRIS/CRIS-CAT, SIPSO, SPRS 및 CIQ-13이었다. RNLI/mRNLI를 평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 도구에서 구조타당도, 측정-재측정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 가설검정에 대한 sufficient 근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용타당도는 모든 도구 및 버전에서 indeterminate로 나타났고, 측정오차와 반응도에 대한 근거도 대부분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도구 및 버전은 COSMIN 기반 권고 체계에서 No conclusion으로 분류되었다.

결론 : 재활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평가하는 다양한 PROMs가 확인되었으나,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 특정 도구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사용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복귀 PROMs의 측정속성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도구의 선택과 결과 해석, 향후 지역사회 복귀 평가도구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지역사회 복귀, 환자보고결과 측정도구, 측정속성, COSMIN, 체계적 고찰

청소년의 수면 · 학습 · 여가 불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김주은*, 서은혜**, 엄유빈*, 서희주*, 장성우*,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 · 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과 학습 및 여가 불균형이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코호트의 4차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일 수면시간이 7시간 이하인 경우를 수면 불균형으로 정의하였다. 학습과 여가 불균형은 응답 분포의 상위 또는 하위 25%를 기준으로 활동별 절단점을 정한 뒤 불균형 항목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자기통제력은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 관계는 일반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수면 불균형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관련을 보였다($B = -.062, p = .004$). 여가 불균형($B = -.190, p < .001$)과 종합 생활불균형($B = -.175, p < .001$)도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다. 학습 불균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은 수면 불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B = .119, p = .002$). 종합 생활불균형에서도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B = .195, p = .035$).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는 수면 불균형과 종합 생활불균형이 삶의 만족도 저하와 관련되었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수면 부족과 여가 불균형 및 전반적인 생활불균형과 관련이 있었다. 자기통제력은 수면과 생활 전반의 불균형이 삶의 만족도와 갖는 부적 관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시간 균형을 지원할 때 자기통제력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삶의 만족도, 생활불균형, 수면, 여가, 자기통제력, 청소년, 학습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각처리 및 감각통합 관련 연구의 체계적 고찰

김지훈*, 이다영*, 은형주*, 오인수*,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각처리 및 감각통합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작업치료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Pubmed, Scopus, RISS, Earticl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sensory integration”, “sensory processing”, “sensory integrative”, “sensory based”, “sensory defensiveness”, “adult”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문헌 선정은 PRISMA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편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선정된 연구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연구 유형, 감각처리 특성, 중재 방법 및 평가도구,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포함된 연구는 치매, 다발성 경화증, 편두통 등 다양한 성인 대상자를 포함하였으며, 감각처리 특성은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가도구는 감각처리, 삶의 질, 행동 및 기능적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감각통합 또는 감각기반 중재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결론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각처리 및 감각통합 연구는 제한적이며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감각기반 접근은 성인의 기능적 수행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감각처리, 감각통합, 성인, 체계적 고찰

fNIRS 기반 인간-AI 상호작용의 인지·정서적 뇌 활성화 특성: 체계적 문헌고찰

김현지*,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은 자연스러운 과제 환경에서 대뇌피질의 혈류역학적 변화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인간의 인지·정서 과정과 인간-AI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fNIRS 기반 인간-AI 상호작용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뇌 활성화 양상과 인지·정서적 특성을 확인하고, 작업치료 분야에서의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PubMed, Scopus 및 Embase에서 문헌을 검색하였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대화형 상호작용 또는 인지·정서적 개입을 적용하고, fNIRS를 이용하여 산소화 및 탈산소화 헤모글로빈(HbO/HbR)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논문이다. 검색된 655편 중 중복 문헌 166편을 제외한 489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422편을 배제하였으며, 67편의 전문 검토 후 최종 4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 : 총 4편의 연구에서 115명의 성인 참가자가 분석되었으며, 주요 측정 영역은 전전두피질과 측두엽피질이었다. 인간-AI 상호작용은 신뢰 판단, 의사결정, 정서·주의 반응이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AI의 신뢰성이 낮을수록 전두엽피질과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HbO가 증가하였고, 불신을 판단하기 전에는 배내측 전전두피질 활성화도 증가하였다($p < .05$). 이는 AI 정보의 신뢰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전두피질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I 조언이 기존 판단과 상충할 경우 의사결정 변경 비율이 증가하였으며(14.16% vs. 5.73%, $p < .001$),功利주의적 논거는 의무론적 논거보다 우측 배외측 전전두엽피질 활성도를 더 크게 증가시켰다($F = 8.109$, $p < .01$). 이는 상충 정보가 추가적인 인지적 검토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AI 자극의 친숙성과 표현 방식 또한 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친숙한 음성은 전전두엽피질과 측두엽피질의 HbO를 증가시켰고($p < .001$), AI 생성 캐릭터는 실사 이미지보다 배외측 전전두엽피질 활성화와 주의 반응을 증가시켰다($p < .01$). 이는 AI의 감각적 특성이 정서적 친근함과 주의 자원 동원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결론 : 인간-AI 상호작용은 단순한 정보처리가 아니라 신뢰 판단, 인지적 검토, 정서적 친숙성 및 주의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인지·정서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I 기반 중재를 설계할 때 정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설명 가능성, 신뢰성 및 감각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친숙한 음성과 적절한 시각 자극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중재의 수용성과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fNIRS는 자연스러운 과제 환경에서 대상자 맞춤형 AI 보조 도구와 재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신경생리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고령자와 신경학적 손상군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fNIRS, 시선추적, 행동 및 자기보고 자료를 통합한 멀티모달 평가 체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fNIRS), 인간-AI 상호작용, 신경생리학적 반응, 대화형 AI, 인지·정서적 뇌 활성화

정책 삼각형 모델을 활용한 해외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현황 비교연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현진*, 김예은*, 신채윤*, 심재린*, 장서윤*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4개국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Health Policy Triangle 모형으로 비교·분석하여 국가별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특성과 운영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학술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 보고서, 법령과 제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HPT(Health Policy Triangle) 모형의 상황(context), 과정(process), 내용(content), 주체자(actors)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각 국가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 : 분석 결과, 4개국은 제도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지속적 생활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단위 조정 체계, 개별화 서비스 계획, 지속적 모니터링,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가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기능평가, 일상생활 수행 지원, 주거환경 조정, 보조기기 연계, 다직종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지역사회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해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치료실 중심의 기능 회복을 넘어 실제 생활환경 속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작업치료사는 기능평가, 방문 개입, 주거환경 조정, 보조기기 연계, 사례회의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작업치료사, 비교 분석

성인 ADHD의 실행기능 과제 수행 중 전전두엽 활성화: fNIRS 연구의 체계적 고찰

남희원*,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대상으로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EF) 과제 수행 중 기능적 근적외선분광법(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을 활용하여 측정된 전전두엽 산소화헤모글로빈(oxygenated hemoglobin; O₂ Hb) 반응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실행기능 영역별 전전두엽 활성화 양상을 종합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PRISMA 2020 지침에 따라 수행된 체계적 고찰이다. 2026년 5월 1일 PubMed, Web of Science, Embase,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 과정에서 출판연도 제한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ADHD 관련 용어와 fNIRS 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구성하였다. 포함기준은 성인 ADHD 대상자를 포함하고, 실행기능 과제 수행 중 fNIRS를 이용하여 뇌 활성화 변화를 측정된 원저 연구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의 방법론적 질은 연구설계에 따라 JBI critical appraisal tool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 초기 검색을 통해 총 905편의 문헌이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6편의 연구가 본 고찰에 포함되었다. 포함 연구에서 사용된 실행기능 과제는 언어유창성 과제, n-back 과제, Go/No-Go 과제, stop-signal 과제, Stroop Color-Word 과제 및 가상현실 기반 과제로 구분되었다. 성인 ADHD는 다수의 연구에서 건강대조군보다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낮은 O₂ Hb 반응을 보였다.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VLPFC와 DLPFC에서 낮은 O₂ Hb 반응 또는 감소 경향이 보고되었으나, 일부 ADHD 신경생리학적 하위집단에서는 DLPFC에서 높은 O₂ Hb 반응이 관찰되었다. 억제통제 과제에서는 VLPFC, DLPFC, pre-SMA, PMA 및 frontal pole에서 낮은 O₂ Hb 반응이 보고되었다. 언어유창성 과제에서는 행동수행이 건강대조군과 유사한 경우에도 전전두엽 및 전두-측두 영역에서 낮은 O₂ Hb 반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지속주의 과제에서는 가상현실 기반 과제를 중심으로 행동수행, 움직임 및 주관적 증상에서는 일부 차이가 보고되었으나, DLPFC O₂ Hb 반응의 집단 차이는 일관되지 않았다.

결론 : 성인 ADHD는 실행기능 과제 수행 중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낮은 O₂ Hb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양상은 모든 과제와 대상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성인 ADHD의 전전두엽 O₂ Hb 반응이 하나의 공통된 양상으로 설명되기보다, 실행기능 과제의 인지적 요구와 ADHD의 신경생리학적 하위집단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인 ADHD의 기능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수행 결과뿐 아니라 과제 수행 중 전전두엽 O₂ Hb 반응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성인 ADHD, 기능적 근적외선분광법, 실행기능, 전전두엽, 체계적 고찰

지역사회 노인 연하 및 구강기능 실태

민경철*, 장신원**, 구진모***, 김은영***, 이유빈***, 이주아***, 장혜원***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원광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국문초록

목적 : 지역사회 노인은 노화, 노쇠 등으로 연하 및 구강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노인성 연하장애(presbyphagia)라고 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삼킴 능력 퇴행, 구강기능 저하, 식사와 관련된 일상생활 및 사회적 참여 저하로 인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영양 상태 저하, 폐렴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관리와 중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연하 및 구강기능 실태 조사를 통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 2026년 7월 6-17일까지 의왕시 보건소 및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노인복지관에 내원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202명(74.63±5.68, 62-91yrs)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K-DRACE), 5초 동안 파, 타, 카를 반복해서 소리를 내는 능력을 확인하는 구강 조음 교대운동기능(파,타,카), 씹기 능력(색 변화 점, 5점 척도)을 이용하여 연하 및 구강기능 수준을 확인하였다.

결과 : K-DRACE 4점 기준으로 파악된 연하 위험군은 전체 56명(27.7%)였다. 연하단계 별로 연하장애 증상을 보고한 빈도는 구강기(27명, 13.4%), 인두기(22명, 10.9%), 식도기(12명, 5.9%)이었다. 구강 조음교대운동 평균 점수는 파(4.92±1.36, .6-8.0), 타(4.96±1.36, .6-7.4), 카(4.73±1.36, .4-7.8)로 매뉴얼 기준 노인 평균 기준보다 낮은 대상은 파(65명, 32.2%), 타(59명, 29.2%), 카(70명, 34.7%)였다. 색 변화 점으로 확인한 씹기 능력 점수 평균은 3.96점(SD=.89, 2-5)이었으며, 2점(13명, 6.4%), 3점(43, 21.3%명)이었다. 일반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연하 유병률은 27.7%, 구강기능 저하는 조음교대운동기능 기준 29.2~34.7%로 확인되었다.

결론 : 노화와 노쇠로 인한 연하 및 구강기능 저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독립적인 삶과 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일상에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27.7-34.7%(평균 30.9%)의 연하 및 구강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하장애 인식 개선, 기능 유지를 위한 작업치료사 등 지역사회 연하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구강기능, 노인성 연하장애, 연하장애, 지역사회 거주 노인, 지역사회 연하장애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LSVT-BIG 변형 그룹 중재가 활동수행 및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프로토콜

박예정*, 배수영**,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LSVT-BIG 프로그램은 대근육 진폭 훈련을 통해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환자의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비약물적 중재법이다. 그러나 기존 LSVT BIG은 고빈도의 개별 대면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파킨슨병 노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비용, 이동 및 공간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그룹 기반 중재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운동 참여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중재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LSVT BIG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초기 및 중등도 파킨슨병 환자가 소그룹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4주간의 작업치료 기반 변형 LSVT BI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단일 맹검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설계한다.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초기 및 중등도 파킨슨병 환자로, Hoehn and Yahr 병기 1~3단계이며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가 23점 이상인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참여자는 소속 기관 또는 소그룹을 배정 단위로 하여 변형 LSVT BIG 그룹 중재군과 표준 LSVT BIG 개별 대조군에 1:1의 비율로 무작위 배정한다. 두 군 모두 주 4회, 회기당 60분씩 총 4주 동안 16회의 중재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각 회기는 준비운동 10분, LSVT BIG의 7가지 표준 운동 30분, 작업치료 실행체계의 작업 영역과 연계한 기능적 과제 훈련 15분, 정리운동 및 피드백 5분으로 구성한다. 기능적 과제 훈련에는 참여자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풍선 토스, 발자국 레이스, 표적 터치, 대형 블록 쌓기 등의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적용한다. 정리운동 단계에서는 근긴장과 강직을 완화하기 위한 파킨슨병 특화 이완 및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주요 결과 변수는 캐나다 작업수행측정(COPM)을 사용하여 측정된 대상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작업의 수행도와 만족도이며, 이차적 결과 변수는 5회 앉고 일어서기 검사(5 Times Sit-to-Stand Test)를 이용한 하지 근력 및 기능적 이동성과 통합형 파킨슨병 평가척도(Movement Disorder Society-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MDS-UPDRS) Part II를 이용한 일상생활의 운동 경험을 평가한다. 모든 평가는 중재 전, 4주 중재 직후 및 중재 종료 15일 후의 추적평가까지 총 3회 실시한다.

결론 : 본 연구 프로토콜은 기존의 일대일 치료 중심 LSVT BIG을 지역사회 작업치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그룹 형태로 수정·구조화한 구체적인 중재 지침을 제시한다. 표준화된 진폭 운동과 일상생활에 기반한 기능적 과제 훈련을 결합하고 그룹 치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파킨슨병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운동 순응도를 촉진하고, 작업 수행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프로토콜은 향후 소그룹 기반 파킨슨병 재활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과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지역사회 기반 LSVT-BIG 변형 그룹 중재, 파킨슨병, 이동성, 지역사회 거주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의 학교준비도 평가도구에 대한 요구도 조사

서은혜*,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학교준비도 평가도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학령전기 유아를 치료한 경험이 있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8문항, 학교준비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작업 영역 1문항, 학교 환경 1문항 및 학교 환경별 요구 활동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모든 대상자가 학교준비도 평가도구의 필요성과 개발될 평가도구의 사용 의향에 대해 '그렇다'(100%)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준비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작업 영역은 수단적 일상생활활동(92%),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참여(84%), 교육(82%), 놀이(62%), 건강관리(46%), 휴식(3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환경으로는 교실, 화장실, 급식실이 모두 '중요하다'(100%)라고 응답하였으며, 복도·계단·로비(96%), 보건실(90%), 도서관(8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 환경별 요구 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72개의 활동을 선정하였다.

결론 : 국내 아동 작업치료사들은 학교준비도 평가도구의 필요성과 활용 의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준비도 평가는 다양한 작업 영역과 학교 환경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반영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작업 영역, 학교 환경 및 활동 요소는 향후 국내 학령전기 유아를 위한 작업기반 학교준비도 평가도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학교준비도, 평가도구, 작업치료사, 요구도 조사

행동활성화 중재의 연구 동향: 계량서지학적 분석

서희주*, 서은혜*, 김주은*, 엄유빈*, 장성우*, 유은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행동활성화 중재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연구 특성과 주제를 파악하고, 작업치료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행동활성화 중재와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문헌 유형을 Article과 Review Article로 제한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대상으로 연도별 출판 추이, 연구 분야, 연구 수행 국가 및 출판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VOSviewer(version 1.6.21)를 활용하여 국가별 인용 분석과 저자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별 인용 분석에는 10편 이상의 문헌을 출판하고 누적 인용 횟수가 50회 이상인 국가를 포함하였다. 저자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에서는 유의어를 통합하고 검색어를 제외한 후 최소 출현 횟수가 20회 이상인 키워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 총 2,784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출판 문헌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에 251편으로 가장 많은 문헌이 출판되었다.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문헌을 출판하였고,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학술지의 출판 문헌 수가 가장 많았다. 국가별 인용 분석 결과, 미국은 인용 횟수와 총연결강도 모두 가장 높았으며, 잉글랜드, 호주, 네덜란드 및 캐나다와 인용 연계성이 높았다. 저자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에서는 'depression'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와 총연결강도를 나타냈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개념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7개 군집의 주제를 해석한 결과, 우울 관련 정서와 동기 및 보상 기제, 불안과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노인과 만성질환 관련 심리사회적 중재, 신체활동과 삶의 질, 아동과 청소년 우울 예방 및 중재 평가, 외상후스트레스와 일차의료 및 재활, 우울증 심리치료로 구분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행동활성화 중재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작업치료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향후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계량서지학적 분석, 우울, 행동활성화

ICF 환경요인 관점에서 개념화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upport Zone) 기반 지역사회 작업치료 중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활동·참여에 관한 실천 사례

신지연*

*성모자애복지관

국문초록

목적 : ICF는 환경요인이 활동과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지만, 국내 지역사회 작업치료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연계하여 실천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을 ICF의 환경요인을 지역사회 맥락에서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적 환경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기반 IADL 및 사회성 기술 중재의 운영 과정을 제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지역사회 활동 수행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ICF 기반 지역사회 작업치료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에서 지역사회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구매, 주문, 이동, 공공시설 이용 등의 IADL과 요구, 선택, 거절, 도움요청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변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Wehmeyer의 자기결정이론 중 자율성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한 작업치료사 관찰 기반 자기결정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17명의 프로그램 초기평가와 총 107건의 반복측정 자료를 대상자별 평균값으로 산출 한 후,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으며, 환경 요인의 변화도 측정하였다. 둘째, 장애 당사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직접 응답한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과 직접 선택 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3년간 참여한 3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IADL 수행 수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 자기결정 평가 지수는 프로그램 초기($M=0.49$, $SD=0.38$) 대비 반복측정 평균값($M=1.44$, $SD=0.47$)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16)=10.99$, $p<0.001$, $d=2.67$). 환경요인은 초기 대비 반복측정 시점에서 지역사회 IADL 수행과정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이 제공되고 실제 활용된 비율이 0%에서 60%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상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원적 태도는 1.00에서 2.50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장애 당사자가 직접 응답한 자기보고 자료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환경과 직접 선택 행동 간 약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r=.151$). 또한 3년간 추적한 3명의 종단 사례에서는 ICF 코드 기반 IADL 평가표에서 지역사회 활동 수행 수준이 향상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물리적·인적 환경이 조성된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사가 IADL과 사회성 기술을 중재하는 통합적 접근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행동과 지역사회 활동 수행을 촉진할 가능성을 보였으며, ICF가 제시하는 환경요인-활동-참여의 구조를 지역사회 작업치료 실천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작업치료, ICF, 환경요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환경(AAC Support Zone), 지역사회참여, 자기결정, 사회성 기술, 수단적일상생활활동(IADL)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예빈*, 권수미*, 손지효*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 6차 자료를 활용한 단면적 이차자료 분석 연구를 하였다. 전체 응답자 7,668명 중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부모 195명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연구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r=0.437, p<0.001$), 자아존중감($r=0.497, p<0.001$), 가족관계($r=0.232, p<0.01$)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는 우울($\beta=0.289, p<0.001$)과 자아존중감($\beta=0.351, p<0.001$), 최종 학력($\beta=0.199,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울과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적,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격차 완화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폐스펙트럼 장애, 부모,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및 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타당성 연구

양현*, 박지혁**, 한대성***, 박혜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라이프스타일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그리고 정신사회적 건강(우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대상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6명이었다. 프로그램은 주 2회, 회기당 60~90분,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축약판(YLP-ABCD-BREF), 한국판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척도(K-SRAHP), 한국판 우울 선별도구(PHQ-9),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척도(LSIS)가 사용되었다.

결과 : 연구 결과, 라이프스타일 중점의 유의한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하위 영역 중 신체활동, 사회관계, 작업참여에서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총점 또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하위 영역 중 운동관리, 건강행동 관리 영역에서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우울 수준은 평균 점수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은 총점의 감소와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계망에서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질적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체험 기반의 중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의 개선을 보다 친숙하고 실천 가능하게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연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체험을 병행한 KEEP 체계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운영방식이 독거노인 건강관리 행동 변화에 효과적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보급과 제도적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독거노인, 라이프스타일, 정신사회적 건강, 지역사회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중재 연구

양희우*, 배수영**,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활동, 균형잡힌 식습관, 사회적 관계 및 의미 있는 작업참여를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는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 부족과 학습 기회 제한으로 디지털 격차에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며, 이는 건강정보 접근 제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사회적 연결망 축소 등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형성 모델(Lifestyle-DEPER)을 이론적 기반으로 KEEP(Knowledge - Evaluation - Experience - Plan) 전략을 적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형성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이다. 중재 프로그램은 사전·사후평가를 포함하여 총 14주 동안 주 1회 실시하며, 본 중재는 12회기로 구성한다. 중재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식습관, 사회관계 및 작업참여의 네 가지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KEEP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온라인 운동 영상의 검색·선택·실행과 활동 기록을, 식습관 영역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의 탐색과 디지털 식생활 일지 작성을 실시한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메신저와 영상통화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작업참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정보 검색과 참여 계획 수립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하도록 한다. 주요 결과변수는 연세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Yonsei Lifestyle Profile)로 측정된 라이프스타일과 디지털 건강리터러시 척도(Digital Health Literacy Scale)로 측정된 디지털 건강리터러시이며, 이차적 결과변수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이다. 사전·사후평가 결과는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에 따라 대응표본 t검정 또는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결론 :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 조작 기술을 단편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접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구조화된 중재를 제안한다. 참여자는 온라인 운동 콘텐츠 활용, 디지털 식생활 기록, 비대면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활동 정보 탐색과 같은 실제적인 작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노인의 디지털 건강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 포용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실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재 모델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디지털 리터러시, 노인, 라이프스타일, 중재, Lifestyle-DEPER, KEEP

디지털 매체 기반 연하재활치료가 뇌졸중 후 연하장애 환자의 연하기능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고찰

오윤호*,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연하재활치료가 뇌졸중 후 연하장애 환자의 연하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무작위 대조 연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Web of Science, Scopus, Embase, PubMed를 활용하여 2016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PRISMA 2020 흐름도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포함된 논문의 방법론적 질은 PEDro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과 : 디지털 매체 기반 연하재활치료의 유형은 크게 게임 기반 연하운동,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기반 프로그램, 영상 기반 연하운동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하기능과 관련된 주요 결과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으나, 군 간 차이는 결과변수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연하기능뿐만 아니라 치료 참여도 관련 지표를 결과변수로 포함하였으며, 해당 지표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선정된 6편의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 PEDro 점수는 6.3점으로 나타났다.

결론 : 디지털 매체 기반 연하재활치료는 연하기능과 더불어 치료 참여도 관련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소와 함께 보호자 교육이 병행된다면 퇴원 이후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활 전략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표본 수와 장기 추적 설계를 갖춘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뇌졸중, 디지털매체, 연하장애, 연하재활, 체계적고찰

장애아동 부모 대상 작업치료 중재의 분류와 효과: 무작위 대조시험의 체계적 고찰

오인수*, 김지훈*, 이다영*, 은형주*,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 대상 작업치료 중재의 무작위 대조시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재 유형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검색 시작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6년 7월까지 Cochrane Library, Web of Science, PubMed 및 Embase에서 문헌을 검색하였다. 장애아동 부모에게 작업치료 또는 작업치료 기반 중재를 제공하고 부모 관련 결과를 보고한 무작위 대조시험 13편을 선정하였다. 복합 중재는 주요 중재목표와 핵심 적용방식을 기준으로 협력적 코칭 중심, 구조화된 교육·훈련 중심 및 부모 작업·건강 직접중재 중심 유형에 대표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협력적 코칭 중심 중재는 5편(38.5%), 구조화된 교육·훈련 중심 중재와 부모 작업·건강 직접중재 중심 중재는 각각 4편(30.8%)이었다. 코칭 중심 중재에서는 부모의 작업수행, 자기효능감과 양육 역량 및 아동의 참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다. 교육·훈련 중심 중재에서는 부모의 양육기술, 스트레스, 삶의 질 및 건강 관련 결과가 개선되었다. 부모 직접중재 중심 연구에서는 작업수행, 시간사용 만족도,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심리적 건강의 향상이 보고되었다.

결론 : 장애아동 부모 대상 작업치료 중재는 교육과 코칭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주요 목표와 핵심 적용방식에 따라 세 가지 대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류는 중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작업치료의 임상적 적용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장애아동 부모, 작업치료 중재, 중재 분류, 무작위 대조시험, 체계적 고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작업치료 연구 동향: 계량서지학적 분석

윤설하*, 정승희**, 김성원**, 한레이**,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작업치료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위한 근거 기반 작업치료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2026년 6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연도별 출판 문헌 수와 연구 분야 동향을 분석하였다. VOS view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국가, 연구기관, 학술지, 키워드 및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총 2,174편의 문헌이 추출되었으며, 2007년 이후 출판이 급증하여 2025년에 가장 많은 문헌이 발표되었다.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에서는 재활, 장애, 수행 등 기능 및 수행 중심의 작업치료 접근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와 연결 강도를 보였다. 대상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경도인지장애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 신뢰도, 타당도가 함께 도출되어 중재 성과와 평가 도구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작업치료 연구의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근거 기반 작업치료 연구와 중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계량서지학적 분석, 인지기능, 작업치료, 치매

학령전기 발달장애 아동 대상 상용 모바일 인지훈련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특성 및 작업치료 관점에서의 임상적 유용성

은형주*, 이다영*, 김지훈*, 오인수*, 이채영*,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학령전기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 발달 지원에 활용되는 상용 모바일 인지훈련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분석하고, 작업치료 관점에서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Google Play Store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애플리케이션 중 3단계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 및 과제 유형, 난이도 조절 및 피드백, 시각 그래픽 및 자극 특성, 인터페이스 및 조작 방식, 임상 및 가정 활용성의 5개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아 작업치료 및 디지털 중재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 5명을 대상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 :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기초 인지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과제를 제공하였으나, 과제 구성과 지원 기능에는 애플리케이션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서는 인터페이스 및 조작 방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난이도 조절 및 피드백, 시각 그래픽 및 자극 특성, 임상 및 가정 활용성에서는 애플리케이션별 평가 편차가 나타났다.

결론 : 상용 모바일 인지훈련 애플리케이션은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 발달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기능적 특성과 임상적 유용성은 평가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아동의 수행 수준과 치료 목표를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 관점에서 상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임상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발달장애 아동, 인지훈련, 임상적 유용성, 작업치료

노년기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이다영*, 은형주*, 오인수*, 김지훈*, 박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배우 노인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노년기 건강한 생활양식 및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횡단적 이차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변수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운동 참여, 영양관리, 여가활동, 사회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특성에 따라 운동 참여에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세 영역에는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만 65세 이상 유배우 노인 5,883명이 포함되었다.

결과 :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관련성은 라이프스타일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영양관리에서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회귀계수가 $\beta=.068(p<.001)$, 여가활동에서는 $\beta=.057(p<.001)$ 로 나타나 두 영역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사회활동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beta=.013, p=.338$), 운동 참여 역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OR=0.94, 95\% CI=0.87 - 1.02, p=.122$).

결론 :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지역사회 거주 유배우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보다 특정 생활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관리와 여가활동에서 확인된 관련성은 노년기 건강행동과 활동 참여를 이해하는 데 배우자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작업치료에서 노인의 생활양식을 지원할 때 배우자를 포함한 관계적 자원을 고려한 중재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건강행동, 라이프스타일, 배우자 관계, 지역사회 노인, 활동 참여

ICF 기반 해외 기능중심 장애통계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이민재*, 이선민**, 최예진**, 황하연**, 김승현***, 이해정***

*충남도립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개념을 국가 통계 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호주(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2022)와 캐나다(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능중심 장애통계 지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호주(SDAC 2022)와 캐나다(CSD 2022)의 사례를 기능수행 측정 방식 및 중증도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장애등록 행정통계 및 장애인실태 조사와 비교하였다.

결과 : 호주와 캐나다는 장애등록 여부보다 기능상의 어려움과 활동 제한을 중심으로 장애를 파악하고, 기능영역별 어려움의 정도를 종합하여 중증도를 산출하는 다차원적 측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SDAC는 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등 핵심 활동의 제한 정도를 중심으로 중증도를 분류하였으며, CSD는 10개 기능영역의 어려움과 활동 제한을 종합하여 전체 장애 중증도를 산출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장애통계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자료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의 기능수준과 활동 제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따라서 국내에서도 WHO의 ICF를 국가 장애통계의 공통된 개념적 틀로 활용하고 국가 승인통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지표와 표준 질문체계를 마련하여 기능수준, 활동 제한, 사회참여, 환경요인 및 지원 요구를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기능중심 국가통계와 기존 행정통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된다면 국가 장애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근거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SDAC, CSD, 국가장애통계

척수손상 환자의 보조공학 중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조수빈*, 김가은*, 정소미*, 채지희*, 황호성**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기존 선행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상생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의 보조공학 중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PubMed,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실험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로 척수손상 AND (휠체어 OR 로봇 OR 가상현실), spinal cord injury AND (Wheelchairs OR Robots OR Virtual Reality)를 사용하였으며, 총 2,126편의 연구 중 8편의 연구를 분류하였다.

결과 :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 중재 중 로봇 중재 3편, 가상현실 중재 3편, 휠체어 중재 2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단일한 기능 향상만으로 설명되기보단 보행, 균형, 상지 기능, 이동성 등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기능적인 변화는 척수손상 환자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의 보조공학 중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가들에게 보조공학을 사용한 중재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근거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차세대 보조공학 개발 방향성에 기여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척수손상, 보조공학, 일상생활,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로봇, 가상현실, 휠체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과의존 예방 교육의 효과: 사전-사후 비교 연구

박경영*, 박서호**, 유지율**, 이예진**, 장우재**, 조정원**, 주형우**, 함예진*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전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및 실제 사용시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상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21명을 분석 대상으로, 2주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7가지 실천 방안 포함)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5)의 과의존 척도(10문항, 40점 만점)로 측정하여 일반 사용자군(≤ 23 점), 잠재적 위험군($24 \sim 28$ 점), 고위험군(≥ 29 점)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사용시간은 iOS 스크린 타임 및 Android 디지털 웰빙 데이터를 분 단위로 환산하여 수집하였다.

결과 : 교육 전 일반 사용자는 14명이었으나 교육 후 20명으로 6명 증가하였고, 잠재적 위험군은 3명에서 0명으로, 고위험군은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다. 위험군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잠재적 위험군 3명은 전원, 고위험군 4명 중 3명이 일반 사용자군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 사용자군에서 위험군으로 악화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주간 평균 사용시간은 약 38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 사용 시간 감소 필요성 인식(75.8%), 사용 조절 필요성 인식(71.5%), 과의존 위험성 인식(64.3%), 자기 사용 습관 성찰(71.4%) 등에서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실천 방법의 도움(67.9%), 사용 시간 감소 체감(64.3%), 프로젝트의 예방 효과(78.6%)에서도 긍정 응답이 우세하였다. 대체 활동으로는 산책·운동 등 신체활동이 가장 많았고, 취미 활동, 인간관계 활동, 사용 제한 행동이 함께 실천되었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2주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통해 위험군에 속한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주간 평균 사용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작업치료 관점에서 대학생의 일상생활 균형과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적 중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실습·실기 위주의 학업을 수행하는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의 작업 수행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 기반 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 예방교육, 디지털 웰빙, 작업균형

우수논문상/학술상

2026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학술상



학술대회
전체 초록집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우수 논문	실험	양몽은*,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작업역할기반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
		조경인*, 박상훈*, 구인순*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취미 기반 자가운동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시간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회복 정도에 미치는 영향
	비실험	길영숙*, 유두한**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발달장애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성생활 만족도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황도연*, 박진혁**, 김수아***, 박제모****,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작업치료실 작업치료사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남과학대학교 글로벌산업융합과 조교수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Development of the Korean Performance Assessment of Self-Care Skills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저자 및 소속	제목
학 술 상	대한보조공학 기술학회	박치수*, 유두한**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수료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내 비약물 중재 연구의 핵심어 네트워크 구조 분석: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대상 연구의 주제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신경제 작업치료학회	권성애*, 박윤이**, 최진솔*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작업치료사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 수행과 소동작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연하 재활학회	김보라*, 민경철**, 홍덕기**, 우희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한국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 표준화 연구
	대한인지 재활학회	이진백*, 정주희**, 한대성*** *라이온요양병원 작업치료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재활치료팀 작업치료실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뇌졸중 환자의 기능인지 기반 중재를 적용한 단일사례연구: 신경기능적 접근(Neuro-Functional Approach, NFA)을 중심으로
	한국노인 작업치료학회	임승주*, 박상미**, 한예빈***, 김기웅****, 지수정****, 홍익표*****, 박지혁***** *모아상담센터 작업치료사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박사후연구원 ***일리노이 시카고대학교 응용보건과학대학 재 활과학 프로그램 박사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 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ackground and Middle Age Mental Health: Insights from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한국운전 재활학회	이샘은*, 최유임** *원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 및 운전중단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감각통합 치료학회	이나헬*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 대학생의 플립러닝 기반 문제중심학습(PBL)에 관한 혼합연구: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수업 중심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이춘엽*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척도(Health Promoting Activities Scale: HPAS)의 번안 및 타당도 검증

※ 자료집에는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발표의 상세 초록은 “목록 상단 QR코드” 혹은 [학회 홈페이지-학술대회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작업역할 기반 시간 사용 중재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

양몽은*, 정민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작업역할기반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을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하여, 의미 있는 역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중재가 역할 수행, 대학생활 적응도, 자기효능감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강원도 소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유학생 29명이며, 4주간의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중재 전·후 역할수행평가(Role Performance Measure; RPM), 대학생활 적응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S), 우울 수준(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역할 수행이 낮은 의미 있는 활동을 선정하고, 주간 계획표, 자기점검표, 피드백 및 격려전화를 병행하였다.

결과: 중재 후 역할수행도(RPM), 대학생활 적응도(SACQ), 자기효능감(GSES), 우울 수준(BDI)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p < 0.05$). 역할 수행과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정서적 안정감과 대학생활 적응력 또한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작업역할기반 시간사용중재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할 수행과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실천적 중재 전략으로, 향후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습관화, 역할수행중재, 의미있는 활동, 작업 치료, 중국인 유학생

취미 기반 자가운동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시간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회복 정도에 미치는 영향

조경인*, 박상훈*, 구인순*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파킨슨 환자에게 취미 기반의 자가운동을 제공했을 때 운동 지속시간에 비례하여 신체기능의 회복과 일상생활활동의 기능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방법: 본 연구는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파킨슨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실험군은 기존의 작업치료 외에 자가운동 훈련 시 취미활동이나 흥미있는 활동을 환자가 설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12명의 환자로 분류하였고, 대조군은 기존 작업치료 외에 치료가 설정한 일반적인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12명의 환자로 분류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8주간 매일 1시간의 시간을 설정해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하였고 자가운동 시간은 1시간을 설정하였으나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시간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 이 실험결과에 따른 두 군 간의 자가운동 유지 시간의 확인 및 자가운동의 시간에 따른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료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과: 자가운동 시간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운동 유지 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두 군 모두 상·하지의 기능적 움직임과 균형능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서 향상을 보였으나($p < 0.05$), 과제 수행 시 집중력은 실험군에서만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지의 기능과 균형능력 및 과제 집중력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결론: 취미나 흥미가 있는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파킨슨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과제 집중력이 높았으며 그에 따른 운동시간의 증가와 함께 상·하지의 움직임 회복과 균형능력의 향상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일상생활활동, 자가운동, 취미, 파킨슨, 흥미

발달장애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성생활 만족도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길영숙*, 유두한**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성생활 만족도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5차 장애인 삶 패널조사(2022)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245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만족도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고,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우울, 자아존중감, 성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학력($\beta = -0.125, p = 0.031$), 우울($\beta = -0.328, p = 0.001$), 발달장애로 인한 성적 활동의 제한($\beta = 0.136, p = 0.024$), 지난 1년간 성생활 만족도($\beta = 0.139, p = 0.019$)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18.8% (Adjusted $R^2 = 0.188$)이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력, 우울, 성생활 만족도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확대와 정서 및 사회적 지원, 성적 권리 존중을 포함한 통합적 작업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발달장애, 사회적 관계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우울, 작업치료

Development of the Korean Performance Assessment of Self-Care Skills

황도연*, 박진혁**, 김수아***, 박제모****,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작업치료실 작업치료사,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남과학대학교 글로벌산업융합과 조교수,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Abstract

Objective: This review of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tools used in Korea highlights the lack of task performance assessment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Korean Performance Assessment of Self-Care Skills (K-PASS) as a tool to evaluate functional mobility, self-care,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atients with central nervous system (CNS) diseases.

Methods: The K-PASS was developed in two phases. Phase 1 involved translating the original scale into Korean, validating its appropriateness through an expert panel, assessing the comprehensibility of the translation, performing back-translation, and reviewing the back-translation for accuracy. Phase 2 focused on tes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PASS.

Results: Several tasks were adapted for the Korean context. Content validity assessment yielded a 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CVI) of 0.92, with item-level CVIs ranging from 0.80 to 1.00. Known-groups validity test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NS disease patients and healthy adults ($p < 0.001$).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was excellent, with a Cronbach's alpha of 0.988.

Conclusion: The K-PASS was developed as a culturally adapted version, demonstrating strong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daily self-care tasks in patients with CNS diseases in clinical settings.

Key words: Assessment development, Client-centered, Performance skills, Performance-based, Self-care

국내 비약물 중재 연구의 핵심어 네트워크 구조 분석: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대상 연구의 주제 차이를 중심으로

박치수* 유두한**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수료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최근 10년간(2015-2025년) 국내에서 수행된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및 치매 환자를 위한 비약물 중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통해 수집한 251편(MCI 91편, 치매 160편)의 논문에서 주제어를 추출하였으며, 빈도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 응집성 분석을 NetMiner 4.0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빈도분석 결과, MCI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치매', '인지중재'가, 치매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MCI', '우울'이 다빈도 주제어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 MCI는 인지중재(0.575), 우울(0.493), 신체활동(0.452)을 중심으로, 치매는 체계적 문헌고찰(0.454), 인지기능(0.351), 우울(0.339)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응집성 분석에서 MCI는 5개, 치매는 7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으며, 디지털 중재와 지역사회 클러스터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CI에서는 자가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중재가, 치매에서는 부양 부담 경감 및 안전 모니터링 기반 기술이 강조되는 등 적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론: MCI 연구는 예방과 기능 회복에, 치매 연구는 BPSD 관리와 부양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두 집단의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도인지장애,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동향분석, 빅데이터, 치매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 수행과 소동작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권성애*, 박윤이**, 최진슬*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작업치료사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 수행 능력, 소동작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만 8세의 발달장애 아동 4명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총 13 회기에 걸쳐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작업 수행 능력은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 을 활용해 주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평가하였고, 소동작 기술은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Second Edition(BOT-2)의 미세 운동 정확성(fine motor precision), 미세 운동 통합(fine motor integration), 손 기민성(manual dexterity)의 세 하위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일화기록을 기반으로 조작적 정의에 따라 행동 키워드를 중심으로 점수화하였으며, Python 3.11.12 버전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모든 대상자는 중재 이후 COPM의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2점 이상 향상을 보였으며, BOT-2의 세 하위 항목과 등가연령 점수에서도 향상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에서는 자기표현, 협력, 자기조절 영역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 발달장애 아동에게 구조화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작업 수행, 소동작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소동작 기술, 작업 수행 능력, 초등학교 적응

한국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연하장애 위험성 평가 표준화 연구

김보라*, 민정철**, 홍덕기**, 우희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standardize the Korean version of the dysphagia risk assess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K-DRACE), identify normative values in the Korean elderly, and age specific swallowing characteristics.

Methods: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confirmed in 489 community dwelling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in Korea. Concurrent validity was verified by correlation with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ssessment tool (K-EAT-10).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utility and estimate the cut-off value. Norms were identified in 5-year age increments, from 65 to 85.

Results: The Cronbach's α value of K-DRACE was .815, test-retest reliability was .834 (95% CI .735-.909). It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K-EAT-10 ($r=.629$, $P<.01$). K-DRACE was thus deemed suitable as a screening tool to identify the risk of dysphagia (area under the curve [AUC]=.828), with an optimal cut-off of 3.5 (Youden's index=.494). The total score of K-DRACE increased with age, with individuals aged 85 years and older being at risk of dysphagia (total score >4). The highest mean score was found in the oral phase.

Conclusion: K-DRACE demonstrated sufficient reliability, validity, and feasibility in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community based swallowing rehabilitation. This study confirms the need for specialized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the oral phase for the oldest age group (85+)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dysphagia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 Korean Dysphagia Soc 2025;15:27-36)

Keywords: Aged, Deglutition disorder, Symptom assessment

뇌졸중 환자의 기능인지 기반 중재를 적용한 단일사례연구: 신경기능적 접근(Neuro-Functional Approach, NFA)을 중심으로

이진백*, 정주희**, 한대성***

*라이온요양병원 작업치료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재활치료팀 작업치료실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기능인지 기반 중재인 신경기능적 접근(Neuro-functional Approach, NFA)이 인지 저하가 동반된 뇌졸중 환자의 작업수행과 보호자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단일사례 전후 비교 설계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68세 여성 뇌졸중 환자 1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주 3회, 회기당 30분의 기능인지 기반 중재를 시행하였다. 중재는 실제 생활 맥락을 모사한 환경에서 상의 착·탈의, 세수하기, 양치하기 과제의 과제/습관 훈련, 오류배제학습, 단서 제공, 환경수정 및 보호자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선과 재평가 시점에 다음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 목표 설정 및 수행도 평가(COPM), 수행의 질(PQRS), 보호자 스트레스 척도 (PSS). 결과는 기초선 대비 재평가 변화량으로 제시하였다.

결과: 중재 후 COPM, PQRS, 보호자 스트레스 척도(PSS) 등의 결과에서 작업수행도 및 수행의 질이 향상되었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감소하였다. 상의 착·탈의 와 세수하기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양치하기는 목표에 근접한 수행을 보였다.

결론: NFA를 적용한 기능인지 기반 중재는 인지 저하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작업수행 향상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뇌졸중, 기능인지 기반 중재, 신경기능적 접근, Functional Cognition-Based Intervention, Neuro-functional approach, 단일사례연구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ackground and Middle Age Mental Health: Insights from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임승주*, 박상미**, 한예빈***, 김기웅****, 지수정****, 홍익표*****, 박지혁*****

*모아상담센터 작업치료사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박사후연구원

***일리노이 시카고대학교 응용보건과학대학 재활과학 프로그램 박사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ssessed how childhood background characteristics relate to midlife mental health using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examining whether positive or adverse early experiences directly influence later mental health.

Methods : Data were drawn from Wave 3 of the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NSHAP) and included adults aged 50–64 (N=770). Mental health was modeled as a second-order latent variable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loneliness, and stress. Childhood factors included family happiness, parental education, financial status, health, family structure, and exposure to viol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valuated associations with and without demographic adjustment.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AS 9.4 and Mplus 8.8.

Results : Among the eight childhood variables, only happy family life ($\beta = -.201, p < .001$) and good childhood health ($\beta = -.095, p < .05$)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beneficial effects on midlife mental health in both crude and adjusted models. Other variables—including parental education, financial hardship, and exposure to violence—did not show significant direct associations.

Conclusion : Positive emotional and physical conditions in childhood are linked to better mental health in mid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engthening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s and promoting childhood health may yield greater long-term benefits than approaches focused solely on reducing adversity. Public health strategies may therefore benefit from prioritizing the enhancement of positive early-life conditions.

Key words : Childhood background, Life course perspective, Mental health, Middle-aged adults, Positive experienc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 및 운전중단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샘은*, 최유임**

*원광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경험과 운전중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의미와 심리·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운전 경험과 운전중단 인식의 본질을 드러내고 운전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202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현재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6인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절차에 따라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과 운전중단 인식에 대해 면담한 결과 34개의 의미 단위, 9개의 하위구성요 소,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4개의 주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 운전의 장애요소, 운전중단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두려움, 운전중단에 대한 인식과 결정 요인이었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경험과 운전중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고령자의 운전이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자율성과 정체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고령 운전자, 운전 경험, 운전중단 인식,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현상학적 연구

작업치료 대학생의 플립러닝 기반 문제중심학습(PBL)에 관한 혼합연구: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수업 중심

이나헬*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대학생의 플립러닝 기반 문제중심학습(PBL)을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미치는 효과와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4년 1학기 K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 과목인 ‘감각처리장애와 중재’를 수강한 3학년 학생이고 양적 연구는 50명이 참여하였고, 질적연구는 9명이 참여하였다.

결과 : 양적 연구결과에서 학습성과는 학습 전보다 학습 후가 전체점수($p<0.01$)와 비판적 사고력($p<0.05$), 의사소통능력($p<0.01$), 협업($p<0.05$)과 창의력($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습 전보다 학습 후가 전체점수($p<0.01$)와 정보수집($p<0.01$), 확산적 사고($p<0.01$), 기획력($p<0.05$), 실행과 모험감수($p<0.01$), 평가($p<0.01$), 피드백($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 인식, 분석 능력과 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성과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각각의 변수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질적 연구결과에서 의미단어 21개, 중심 의미 7개, 주제 2개가 도출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 교과목의 플립러닝 기반 문제중심학습(PB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자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혼합연구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척도(Health Promoting Activities Scale: HPAS)의 번안 및 타당도 검증

이춘엽*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척도(health promoting activities scale; HP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였다. HPAS를 번역 및 역번역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1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 : 1차 델파이 결과 CVR은 0.27~0.82였고, 평균은 4.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동일한 문구사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 국내 문화에 맞는 예시 제시,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2차 델파이에서는 CVR 0.82~1.00이었고, 평균은 4.7~5.0이었으며, 영적 표현의 수정, 특정 종교의 명칭 삭제 등을 권장하였다.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평균 4.2~4.8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적 표현의 삭제, 모호한 표현에서 구체적인 설명 제시 등을 언급하였으며, 실제 본인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를 제시해 국내 문화에 맞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 : K-HPAS는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향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건강증진활동, 장애아동 어머니, 타당도, 한국어, Health Promoting Activities Scale

Rehaboard

상지 재활 훈련 로봇

SPECIFICATIONS

제품 규격	960(W)x730(D)x310(H)mm
모터 종류	24V BLDC Motor
패드 규격	675(W)x515(D)mm
모터 입력 전압	24V
모터 정격 출력	43W
모터 정격 전류	2.7A
정격 전압 및 주파수	200V, 60Hz



OVERVIEW



레하보드는 뇌졸중 및 다양한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상지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위한 상지 재활 로봇 시스템입니다. 대형 모니터의 재활 콘텐츠를 기반으로 보드 위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며 훈련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훈련 모드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효과적인 상지 재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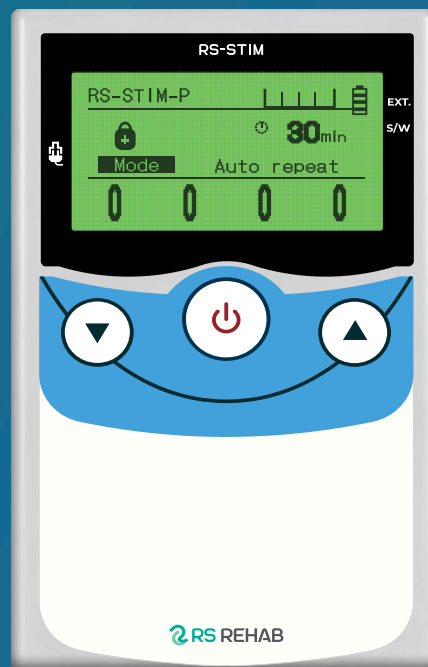
ASSESSMENT



RS REHAB이 제안하는 연하장애 재활 치료의 새로운 접근

가정에서 시작하는 연하장애 재활 치료

보급형 연하장애 재활 치료기기
알에스 스팀(RS-STIM P) 출시



모델명: RS-STIM1.0P
허가번호: 제허 22-835호

■ RS-STIM의 재활치료 효과

- 삼킴기능 점수 2.6배 향상
- 흡인율 2.1배 감소

* J NeuroEngineering Rehabil 2021 (2채널 전기자극기와 비교평가)

DYSPHAGIA

TREATMENT DEVICE

연하장애 치료를 위한 재활 패키지



VITALSTIM PLUS

연하장애치료 및 평가시스템



sRED

인두 수축근 훈련기



NOVAFON

국소부위 진동자극기

체감형 운동재활 훈련시스템

MOTO Rehab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콘텐츠 결합하여
마비 환자의 손 기능 및 운동기능 증진 훈련 시스템



특징

- 체감형 도구(11개), 화면터치(3개) 버튼(3개) 17가지 운동기능 증진 훈련 콘텐츠 내장
- Finger tapping을 이용한 손가락 기능 훈련
- Finger tapping 검사(왼쪽, 오른쪽 개별) 가능
- 8가지 도구 탈 부착 및 도구 운동저항 조절 가능
(원형 손잡이(대,소), ㄱ손잡이, 문손잡이, 그림에어튜브 막대손잡이, 운전대, 핀치손잡이)
- 각 콘텐츠별 난이도 설정(1~20단계)
- 각 콘텐츠 별 훈련 평가 제공
(수행시간, 난이도, 정확도, 평균 반응시간, 성공횟수 제공)
- 난이도 자동 설정 가능
- 사용자 DB 관리 프로그램 내장
- 전동 높이 테이블을 이용한 높이 조절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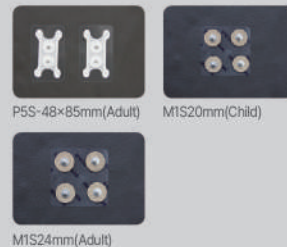
- 타제품(고정 패턴)에 없는 다양한 삼킴 자극 패턴 변경 가능
- 3종류 치료 모드 내장(PGM1 고정, PGM2 수정 PGM3 패턴 조절/저장 모드)
- 자극 패턴 조절을 통해 치료사가 핸드 스위치 조작으로 환자의 삼킴 훈련에 맞춰 수동 훈련 가능
- 반복(사이클) 자극 패턴 조절을 통해 설정한 자극 패턴으로 삼킴 훈련이 가능
- 전용패치가 4개 분리되어 다양한 치료 부위 선택자극 가능
- 100가지 치료 패턴 저장 가능한 메모리
- 부드러운 자극으로 지속적인 치료 가능
- 동작 중 접착 패드 이탈 시 출차단 안전장치
- 건전지 잔량 표시 및 자동 전원 "OFF" 기능
-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잠금장치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기

STIMPLUS DP100A(가정용) DP200A(병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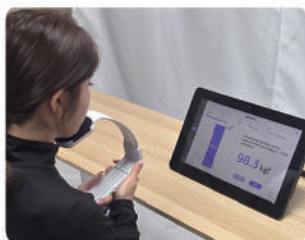
Elektrode



후두상승 강화 훈련기

LES 200

삼킴 장애 극복을 목적으로 후두근육의 저항 측정 및 운동기기
목벨위근(설골상근)을 강화시켜 삼킴 시 기도 보호 향상



본체



텐션바: High(강), Medium(중), Low(약)

특징

- 아래턱 저항운동 및 힘 분석(3번 평가) :
최대압력, 평균 압력 유지 시간, 초기 시간, 최댓값 시간, 피로도, RMS
- 두 종류의 턱의 움직임 훈련 프로그램 내장(최적 파라미터 내장) :
등장성 게임, 등척성 게임
-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통한 바이오피드백 훈련 가능(안드로이드 환경)
- 컨트롤러와 휴대폰의 무선 블루투스 통신방식 적용(데이터 통신)
- 3.7V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 적용
- 세 종류(Small(약), Medium(중), Large(강))훈련용
장력 선택 텐션바 제공(선택사항)
- 사용자 개인 DB 관리 프로그램 내장(Progress 관리, 출력가능)
- 29가지 삼킴훈련 애니메이션 내장



전산화 인지 언어 학습 훈련 프로그램

아이점프런

뇌인지 장애 및 학습지연이 있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지, 언어, 학습 및 사고 잠재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전산화 인지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임상 현장에 게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콘텐츠와 보상방법으로 아이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지각, 주의력, 청지각, 기억력, 수리력, 언어능력, 고위인지 등 총 7가지 영역을 훈련할 수 있으며 **만 2세~1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현재 대학병원, 소아전문병원, 아동발달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전산화인지재활치료 **[MZ009] 코드**를 통하여 병원에서 인정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초 출시 예정

한국형 감각통합 임상관찰도구 (K-CO)



감각통합 기능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조기 발견부터 근거 기반 맞춤형 중재까지 지원하는 검사도구

저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대상	만 4세 ~ 6세
소요시간	30분

한국판 감각프로파일2 (K-SP2)



일상생활 맥락에서 아동의 감각처리 패턴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아동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중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

한국판 저자	김은영, 김슬기, 김미선, 정윤희, 지석연, 배대석
저자	Winnie Dunn
대상	영아 (K-ISP2) : 0개월~6개월 유아 (K-TSP2) : 7개월~35개월 아동 (K-CSP2) : 3세~14세 11개월 단축 (K-SSP2) : 3세~14세 11개월
소요시간	5~20분

드간지-벡 감각통합검사 (TSI)



아동의 감각통합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도구

역자	김은영
저자	Georgia A. DeGangi Ronald A. Berk
대상	만 3세 ~ 5세
소요시간	30분

자페스펙트럼 아동의 참여를 위한 감각통합(ASI®) 임상 가이드



에어스 감각통합 중재를 근거 기반으로 단계별 절차와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서

역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저자	Roseann C. Schaaf, PhD, OTR/L, FAOTAZoe Mailloux, OTD, OTR/L, FAOTA
쪽수	215 페이지
ISBN	979-11-85662-90-9

한국판 Beery 시각-운동통합검사 6판



전 연령대의 시각-운동통합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심리검사

한국판 저자	황순택, 김지혜, 홍상향
저자	Keith E. Beery, Ph D, Norman A. Buktenica, Natasha A. Beery
대상	2세~90세
소요시간	약 10분~15분

신경발달장애를 위한 적응행동 평가의 핵심



적응행동 평가와 적응기능 프로파일 해석을 위해
빠른 참조로 구성된 전문적 가이드

역자	조혜선, 정현석
저자	Roseann C. Schaaf, PhD, OTR/L, FAOTAZoe Mailloux, OTD, OTR/L, FAOTA
쪽수	255 페이지
ISBN	979-11-85662-77-0

NIRSIT

휴대용 fNIRS 시스템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NIRSIT

NIRSIT LITE

NIRSIT은 KAIST 연구실 창업으로 설립된 오비이랩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휴대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첨단 뇌영상장비로, 근적외선 분광기법(fNIRS)을 활용하여 뇌 연구자 및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뇌 기능을 간편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NIRSIT은 밀리미터 수준의 공간 해상도와 1mW 이하의 두 파장의 근적외선(~780nm, ~850nm) 레이저를 사용하여 뇌혈액 내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안전하게 측정, 뇌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된 측정툴 **NIRSIT SCAN**과 분석툴 **NIRSIT QUEST**는 연구자들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지원합니다. **NIRSIT**의 첨단 기술과 뛰어난 성능으로 뇌과학 연구의 미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가능 분야: 인지신경과학, 정신과 및 신경과 질환관련 임상관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로피드백 및 재활연구, 스포츠과학, 교육관련 등의 연구

NIRSIT SCAN PC Tool



Data

- 측정값: HbO, HbR, HbT, rSO₂.
- 형식: SNIRF, CSV (읽기 전용)

주요 기능 및 특징

- 초보자 및 전문가 모두가 사용하기 적절한 인터페이스(UI).
- 3D brain image에 실시간 뇌 활성화도를 표시.
- Trend/ Time-series 그래프에 실시간 신호 변화를 시각화.
- 외부 자극 과제의 마커를 송/수신 가능.
- LSL(Labstreaming Layer Protocol) 기능 지원: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다양한 application에 활용 가능.
- Smart report 기능: 태스크 구간별 변화량 시각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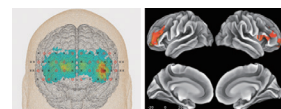


NIRSIT QUEST Analysis Tool



주요 기능 및 특징

- 프로젝트 기반의 파일 관리: 모든 필요한 파일들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원클릭 설정으로 편리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적용가능.
- 개별 사용자/연구에 맞춘 Preprocessing 설정을 미리 저장해 필요 시마다 불러올 수 있는 프리셋 기능.
- 논문의 'Method' 섹션 작성을 손쉽게 해주는 자동 전처리 요약 기능. (각 전처리 단계의 기본값뿐만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의 근거 논문까지 한 번에 정리)
- 개인 및 그룹 수준의 Block Averaging, GLM(General Linear Modeling), Connectivity 분석.
- 광범위한 통계 분석: t-test와 ANOVA 계열의 모수 및 비모수 통계를 한 번에 실행.
- 시계열 그래프와 뇌 활성화 맵 시각화 기능.
- 3D-DOT 기능 지원: Nifti file 변환 후 fMRI 분석도구 SPM에서 분석 가능



www.obelab.com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13층 (주)오비이랩

TEL +82-2-6407-3889 FAX +82-2-6407-4967 E-mail contact@obelab.com

OBELAB

2026 제34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 OT Beyond Borders : AI와 함께 여는 작업치료의 미래 -

자료집

발행일 : 2026년 9월 19일

발행인 : 최유임

발행처 : 대한작업치료학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내

이메일 : ksotooffice@nate.com

홈페이지 : <https://www.ksot.kr/>